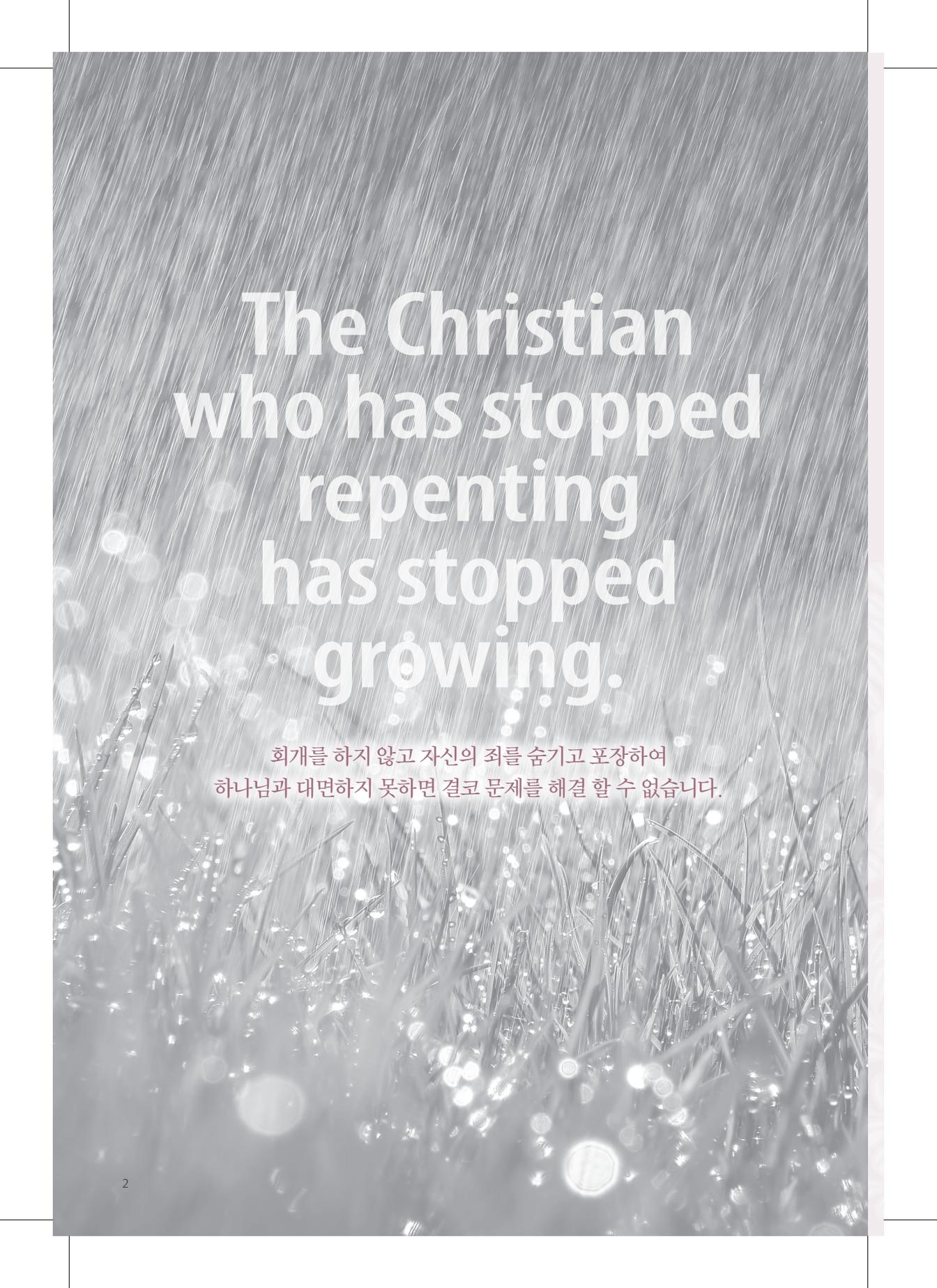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사랑하는 _____ 님께 드립니다



The Christian who has stopped repenting has stopped growing.

회개를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숨기고 포장하여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면 결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Dear Lord 주님,

From June 2022, 6월에는

Time 시간

Place 장소

에서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Name 이름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화요일 · Tue
11
2022 JANUARY

노아가 함을 저주하다

Noah cursed Ham

4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60

0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화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1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과 같습니다.

2 묵상본문
오늘 묵상할 성경구절의 범위

3 통독본문
3년 1독을 위한 오늘 통독 범위

4 여는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5

백집기

번제를 드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생물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을 노아와 맺으시며 그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보여주셨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잠든 자신의 모습을 목격한 아들 '함'을 저주하여 형제들의 종이 되라고 저주하였습니다.

1

새393장(통447장) 오 신실하신 주

2

묵상 · 창세기 9:20-27

3

통독 · 창세기 9장

6

20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2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23 썸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24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26 또 이르되 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썸의 종이 되고

27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썸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Reading Insight

Noah, who worshipped God with burned offerings, was blessed by God to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God made a covenant with Noah to never again destroy living creatures with a flood and as proof showed the rainbow in the cloud. Noah was drunk with wine and fell asleep and his naked body was exposed to his son, Ham, whom Noah cursed to be slaves of his brothers.

🎵 Hymn 393 Great is Thy Faithfulness

Meditation • Genesis 9:20-27

Reading Plan • Genesis 9

20 Noah began to be a man of the soil, and he planted a vineyard.

21 He drank of the wine and became drunk and lay uncovered in his tent.

22 And Ham, the father of Canaan, saw the nakedness of his father and told his two brothers outside.

23 Then Shem and Japheth took a garment, laid it on both their shoulders, and walked backward and covered the nakedness of their father. Their faces were turned backward, and they did not see their father's nakedness.

24 When Noah awoke from his wine and knew what his youngest son had done to him,

25 he said, "Cursed be Canaan; a servant of servants shall he be to his brothers."

26 He also said, "Blessed be the LORD, the God of Shem; and let Canaan be his servant.

27 May God enlarge Japheth, and let him dwell in the tents of Shem, and let Canaan be his servant."

7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먹거리와 이에 함께 경고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3-4절)

What was the food given by God and the accompanying warning? (9:3-4)

경고 안에 담긴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5-6절)

Please meditate deeply on the meanings contained in the warning. (9:5-6)

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5 맥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6 영한 대역(ESV/개역개정)

영어와 한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7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8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1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흠여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영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 금원재(AK)
기쁨의 교회, 장준식(AL)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새해의 소망 VS 믿음 Hope and Faith in the New Year

2022년 새해의 첫 날입니다. 2020년도 부터 시작된 팬데믹이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새해의 첫 날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합니다. "팬데믹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포함하여, 가족들의 건강, 자녀들의 학업, 그리고 재정적 상황 등, 과거 보다는 나아지기를 기대하지요. 여러분도 새해를 향한 나름의 기대와 소망을 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새해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언약이자 반드시 이루어질 명령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섭리, 뜻, 계획'이자, 사람들의 그것과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새해 첫날, 많은 사람들은 나름의 기대와 소망을 품겠지만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섭리, 뜻, 계획'을 먼저 찾고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창세기 1장1절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이 믿음 위에서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구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믿음이란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새해의 소망을 구하시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Today is the first day of 2022. The pandemic which began in 2020 changed our lifestyle but the first day of the new year still brings us new expectations and hope. We expect a better future than the past and make wishes like the end of the pandemic coming soon, good health for family members, good conditions at children's schools, good financial conditions for family, etc. I can guess that you all have your own expectations and hopes for the new year. Did God also have His own expectations and hopes as He created the world with His "Word"?

God's Word by itself is the promise and the command that would be fulfilled with certainty. Therefore, the expectations and hopes of God, that is, "His providence, will, and plan," would clearly be different from those of humans. On the first day of the new year, we may have a myriad of our own expectations and hopes, but as believers we must first seek and find the expectations and hopes of our Lord - "His providence, will and plan" - because our faith is built on Genesis 1:1. Unless we seek and find the expectations and hopes in life based on our belief in the Word, "God created the world," our faith will eventually be shaken. I pray that we begin the new year today by seeking hope in the new year based on our faith in the Word.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4 오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5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6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자녀들의 매일 말씀묵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스티커를 활용해보세요

7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 Youtube 바로가기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 Youtube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일독/말씀묵상

혼자서도 문제없다

1 시간을 정해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찬송, 기도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3 어떻게 읽을까?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워드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십시오. 각 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구절에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4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일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여정을 기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5 마무리는 이렇게!

자신의 One Verse를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성경을 완독하고, 꾸준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amily Pleasant Hill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 합니다!

1 언제가 좋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매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녁 시간 이후, 혹은 아침 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2 모임 장소 Tip!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지 않도록 합니다.

3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인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아빠>엄마>첫째>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목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 WEDNESDAY | THURSDAY | FRIDAY | SATURDA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레위기 Leviticus 1장 □ | 2 레위기 Leviticus 2장 □ | 3 레위기 Leviticus 3장 □ | 4 레위기 Leviticus 4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레위기 Leviticus 7장 □ | 9 레위기 Leviticus 8장 □ | 10 레위기 Leviticus 9장 □ | 11 레위기 Leviticus 10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레위기 Leviticus 13-14장 □ | 16 레위기 Leviticus 15장 □ | 17 레위기 Leviticus 16장 □ | 18 레위기 Leviticus 17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레위기 Leviticus 20장 □ | 23 레위기 Leviticus 21장 □ | 24 레위기 Leviticus 22장 □ | 25 레위기 Leviticus 23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레위기 Leviticus 26장 □ | 30 레위기 Leviticus 27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05 May</p> <table border="1"> <tr><td>S</td><td>M</td><td>T</td><td>W</td><td>T</td><td>F</td><td>S</td></tr> <tr><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r> <tr><td>8</td><td>9</td><td>10</td><td>11</td><td>12</td><td>13</td><td>14</td></tr> <tr><td>15</td><td>16</td><td>17</td><td>18</td><td>19</td><td>20</td><td>21</td></tr> <tr><td>22</td><td>23</td><td>24</td><td>25</td><td>26</td><td>27</td><td>28</td></tr> <tr><td>29</td><td>30</td><td>31</td><td></td><td></td><td></td><td></td></tr> </table> | S | M | T | W | T | F | S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 | | <p>07 July</p> <table border="1"> <tr><td>S</td><td>M</td><td>T</td><td>W</td><td>T</td><td>F</td><td>S</td></tr> <tr><td></td><td></td><td></td><td></td><td></td><td>1</td><td>2</td></tr> <tr><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d>9</td></tr> <tr><td>10</td><td>11</td><td>12</td><td>13</td><td>14</td><td>15</td><td>16</td></tr> <tr><td>17</td><td>18</td><td>19</td><td>20</td><td>21</td><td>22</td><td>23</td></tr> <tr><td>24</td><td>25</td><td>26</td><td>27</td><td>28</td><td>29</td><td>30</td></tr> <tr><td>31</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S | M | T | W | T | F | S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 | | | |
| S | M | T | W | T | F | 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 30 | 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 | M | T | W | T | F | 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4 | 5 | 6 | 7 | 8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겸손

Humility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

Why _ 왜 읽어야 할까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의 겸손을 구하라. 그분 안에 있는 깊은 겸손의 회복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What _ 어떤 보배인가

책 소개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랜 고민과 목상이 만들어낸 고전으로 겸손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에게 겸손을 배우도록 한다. 아울러 겸손이 우리 삶과 신앙의 전체 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고 있다. 겸손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

평생을 남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앤드류 머레이. 그는 240여 편의 주옥같은 글들을 남겼는데,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생활과 기도에 관한 것이다. 그가 쓴 저서의 특징은 신앙의 핵심을 찾아서 일목요연하게 해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모든 저서는 머레이 자신의 경건과 기도 생활 가운데 직접 깨닫고 체험한 것을 담고 있기에 더욱 놀라운 깊이가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Chapter 2 겸손 : 속죄함의 비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 2:5-8)

나무는 뿌리를 통해서만 자랍니다. 그리고 나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담고 있는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왜 우리가 속죄함(redemption)이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죄함의 본질(nature of redemption)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뱀은 그의 교만함으로 인해 천국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는 교만함으로 뿔뿔 뭉쳐진 존재였습니다. 그는 하와의 귓속에 달콤한 유혹의 말을 전할 때 지옥의 독까지 같이 전해주었습니다. 하와가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녀 스스로 선과 악을 알고 싶었고 그 생각은 그녀의 영혼에 들어왔으며 그녀의 생명을 타락시켰습니다. 이미 하와 안에는 우리의 영원한 행복인 겸손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대신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죄와 저주 그리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와의 생명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명까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불쾌하고 비참한 일들은 바로 교만에 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과 학살, 모든 이기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 질투심과 야심 그리고 깨어진 마음들과 힘든 삶,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타락된 마음, 즉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교만의 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속죄함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절실하게 찾게 될 것입니다.

나무는 뿌리를 통해서만 자랍니다. 사탄은 강력한 힘으로 날마다 매시간 인간들을 유혹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인간들은 사탄의 유혹에 의해 고통스러워하며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과 싸우려고 노력을 하며 사탄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서부터 그런 힘이 오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강력한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극복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교만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우리의 안과 밖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고백하고 그것을 증오하며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왔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교만이 너무 강력하여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교만을 물리칠 수 없다는 생각에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곧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능력, 바로 하나님 어린 양의 속죄(redemption of the Lamb of God)입니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악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속죄함의 결실인 천국의 겸손이 우리에게 전해짐으로써 우리는 교만과 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를 통해서만 자랍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얼마나 강한지 보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아담, 즉 예수님의 능력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교만보다 더 강력하고 더 영원하며 더 강력한 겸손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골 2:10, 19)

Memo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레위기

Leviticus

레위기의 이름은 어디서 왔습니까?

레위기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행하는 희생 제사와 성소에 대한 율법을 기록하고 있기에 이 책의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학자들은 이 책의 첫 단어를 따라 “와이크라”(וַיִּקְרָא - And he was calling - Way-iqra’)라고 불렀는데, 탈무드의 전통 역시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의 율법”(The Law of the Priests) 또는 “희생제사의 율법”(The Law of Sacrifice)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모세의 세 번째 책”이라는 부제가 더해졌는데, 초기 히브리어 사본에 없었지만 후에 추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자는 누구입니까?

성서 비평 학자들은 모세의 저작설을 부정하는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지만, 교회는 레위기의 모세 저작설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레위기에 대해 “모세의 율법”(눅 24:44)이라고 언급하신 내용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에서 레위

기의 기록은 모세와 직접적으로 연관시켜 설명하셨기 때문입니다(마 8:4; 눅 5:14; 레 14:3, 4, 10). 또한 불신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요 5:46, 47)라고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기록”하였다는 사실과 이 기록이 “그의 글”이라고 언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왜 어렵다고 느낄까요? 레위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레위기는 어려운 책이다. 레위기를 읽는다 해도 ‘읽었다는 것’ 이외의 다른 유익을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면서 읽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본문도, 읽고 난 후 그 내용을 정리하여 삶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책도 레위기를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레위기 본문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경우가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구약의 제사법, 제사장의 위임식, 정결과 부정의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의 내용들... 어느 것 하나 익숙하지 않고, 일상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개념들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거룩’이라는 주제가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전체를 통해 “거룩”이라는 개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고백,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는 명령, 그리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는 약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위기는 ‘거룩한 삶을 위해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는 레위기의 분명한 성취이며, 레위기는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위한 구체적인 명령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왜 레위기가 중요합니까?

레위기는 앞편으로 창세기와 출애굽기, 뒷편으로 민수기와 신명기에 접해

있는 모세오경의 중심에 있는 책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와 삶의 중심인 것처럼, 레위기는 그 예배에 관한 교훈의 중심에서 있는 책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회막을 중심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분깃점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이전의 말씀은 시내산 위에서 주신 말씀이고, 레위기 이후부터 하나님은 산 아래 성막(회막)에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찾아와 계시므로 더 이상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는 회막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희생제사'는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하나됨'의 수단으로 제공하신 이 제사는 인간이 만들어낸 의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잘못과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의 수단입니다.

희생제사(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레위기는 희생제사(예배)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속죄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레 16:30)라는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바른 관계와 그 관계를 유지하는 길, 또 하나님과 화해한 상태에서 사는 모습, 예배의 삶을 명령하십니다. 성막이 세워진 후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모두 정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리더인 제사장들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명령입니다. 예배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와 구별된 삶을 스스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 가는 삶'입니다(레 20:24-26). 하나님 닮기(imitation dei)! 이것이 바로 '회막에서 주신 계시(레위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레위기의구조

- 1~7장(법전)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 8-10장 제사장 위임, 첫 제사,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 11-15장(법전) 일상에서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가?
- 16장 대속죄일 이야기
- 17장~24:9(법전) 가정과 공동체 전체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
- 24:10~23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사건 이야기
- 25장~27장(법전) 희년, 구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참고도서

BST 레위기 강해(데렉 티드볼 / IVP)
구약개론(김영진 외 / 대한기독교서회)
구약성서이해 열마당(왕대일, 대한기독교서회)
뉴인터프리터 스테디바이블(애빙돈)
해설 관주 성경전서(독일성서공회 / 대한기독교서회)
공동번역 성서해설(일과 놀이)

수요일 · Wed

01

2022 June

번제를 통해 배우는 교훈

Lessons learned through burnt offering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희생제물을 '전부' 불살라 태우는 번제의 핵심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신을 '전부'(온전히) 내어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진 제물은 '전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사람이 제물을 조금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번제는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전부' 하나님께 바쳐서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 새20장(통41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특상 · 레위기 1:1-9

통독 · 레위기 1장

- 1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 3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 4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 5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 6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 7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여 놓고
- 8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뜯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여 놓을 것이며
- 9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로스웰리즈연합감리교회, 신병옥(CA)
밴나이스연합감리교회, 안정섭(C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번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제사입니다

A Burnt Offering Is a Sacrifice of the Whole Self

번제를 드리는 절차를 보면, 제물을 준비하고, 그 제물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깨끗이 씻는 것까지 모두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제사장이 '전부' 도맡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전문성과 제사를 드리는 자의 헌신이 함께 담긴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라"(1절)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들도 제사장 못지않은 헌신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친히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제사(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자로서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집례자의 전문성 못지않게 예배자의 헌신이 꼭 수반되어야 합니다. 규례에 따르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에 안수를 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만, 실은 자신을 드린다는 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예배)가 나를 온전히 바치는 제사(예배)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로서 나는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고 있습니까? 매 주일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물 속에도 우리 자신이 온전히 담겨 있어야 할 것입니다.

Looking at the detailed procedures of preparing the burnt offerings: first, an animal is prepared, then the hide of the animal is skinned, then it is cut into pieces, and then it is cleansed thoroughly. All these were handled by the person preparing the offering. The offering rituals of Israel were not exclusively conducted by the priests but were done jointly by priests who were trained and by those who prepared offerings with dedication. That is why God commanded Moses in Leviticus 1:2, "Speak to the Israelites and say to them..." God Himself wanted to teach that those who prepare offerings need to be as ready and as dedicated as the priests.

How is our ritual (worship) today? As a worshiper, am I doing my best to prepare for worship? In order for the worship to be pleasing to God, the training of the priest must also be accompanied by the dedication of the worshipers.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the priests making the burnt offering must lay their hands on the animal to be used as an offering. Though animals are used as offerings, it is revealed that in fact we are offering ourselves. The burnt offering was a worship ritual, offering ourselves completely. It is reassuring that the worship of offering myself completely is what pleases God. As a worshiper, am I offering myself completely to God? Even in the routine weekly offering we make every Sunday, it must contain ourselves completel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목요일 · Thu

02

2022 June

소제를 통해 배우는 교훈

Lessons learned through grain offering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면, 소제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로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에서 가인의 제사는 소제였고, 아벨의 제사는 번제였기 때문에 번제가 소제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번제와 소제를 모두 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제사에서 제물의 피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제의 경우에도 형편에 따라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규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 새21장(통21장) 다 찬양하여라

묵상 · 레위기 2:1-11

통독 · 레위기 2장

1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2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시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3 그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4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5 철판에 부친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6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7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8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9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시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0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11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Reading Insight

The burnt offerings are the rituals of those people who depend on flocks of animals. The grain offerings are the rituals of the people who live on crops of agriculture. In the story of the offerings brought to God by Cain and Abel, Cain's offering was grain offering and Abel's offering was burnt offering. Therefore, some argued that the burnt offering is superior to the grain offering but this is an incorrect interpretation. The Bible views both offerings as equally important. (In thanksgiving worship the blood of the offering is immaterial.) In the case of grain offering, there were regulations allowing special offering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 Hymn21 Praise to the Lord, the Almighty

Meditation • Leviticus 2:1-11

Reading Plan • Leviticus 2

1 “When anyone brings a grain offering as an offering to the LORD, his offering shall be of fine flour. He shall pour oil on it and put frankincense on it

2 and bring it to Aaron's sons the priests. And he shall take from it a handful of the fine flour and oil, with all of its frankincense, and the priest shall burn this as its memorial portion on the altar, a food offering with a pleasing aroma to the LORD.

3 But the rest of the grain offering shall be for Aaron and his sons; it is a most holy part of the LORD's food offerings.

4 “When you bring a grain offering baked in the oven as an offering, it shall be unleavened loaves of fine flour mixed with oil or unleavened wafers smeared with oil.

5 And if your offering is a grain offering baked on a griddle, it shall be of fine flour unleavened, mixed with oil.

6 You shall break it in pieces and pour oil on it; it is a grain offering.

7 And if your offering is a grain offering cooked in a pan, it shall be made of fine flour with oil.

8 And you shall bring the grain offering that is made of these things to the LORD, and when it is presented to the priest, he shall bring it to the altar.

9 And the priest shall take from the grain offering its memorial portion and burn this on the altar, a food offering with a pleasing aroma to the LORD.

10 But the rest of the grain offering shall be for Aaron and his sons; it is a most holy part of the LORD's food offerings.

11 “No grain offering that you bring to the LORD shall be made with leaven, for you shall burn no leaven nor any honey as a food offering to the LOR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부유한 사람들의 소제와 서민들의 소제는 어떻게 달랐습니까?
(1-3절, 4-10절)

How different were the grain offerings of the rich people from those of the poor?
(1:1-3, 4-10)

하나님은 왜 소제물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하셨을까요? (11절)

Why did God forbid the yeast and honey in the grain offerings? (1:11)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 류재덕(CA)
버클리새교회, 김종식(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소제, 정성을 담은 제사입니다

Grain Offering Is a Ritual Prepared with Passion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제에 대한 규례를 보면, 하나님은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 과정과 굽고, 튀기며, 요리하는 과정에도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은 곡식 가루에 유향을 넣어 드렸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요리한 것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감사’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소제는 또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 일상에서 먹는 곡식 중 일부를 정성껏 요리하여 드리면 되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누구나 (그것도 소박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에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요? 하나님은 남은 소제물들을 제사장에게 돌리시며 이를 “지극히 거룩한 것”(3절)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거룩한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소제는 사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도 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소제에 “누룩과 꿀(과즙)을 넣지 말라”(11절)는 것은 이것이 제물을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전이 생명으로 가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제사를 드리는 이들도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감을 의미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들고나가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The ritual prepared with crops was not necessarily easier. The regulations on grain offerings reveal that God commanded that all offerings, including the process of making flour from crops, baking, frying, and cooking, should be prepared with passion and dedication. Affluent people offered the crop flour added with incense and the poor offered cooked foods with dedication and passion. Through these God taught them that “thanksgiving” was not an act of reluctance but was an act of joy and passion.

The grain offering was something anyone could afford to do. Anyone could have used a part of their daily food ingredients and cooked with passion and offered it to God. God had made it so easy for ordinary people (without any sophistication) to offer their thanksgiving to God. But aren't we too stingy in expressing our thanksgiving to God? God relegated the rest of the grain offerings to priests and called it, “a most holy part of the offerings” (2:3). “The most holy part of the offerings” means that “the offerings belong to God.” (In fact, the grain offering belongs to God therefore God is receiving what belongs to God.) As a matter of fact, we should remember that the foods we consume every day are not ours but are gifts from God.

“The yeast and honey must not be used” (2:11) in the grain offerings because they spoil the offerings. While this means that the tabernacle should be full of life, at the same time, it means that those preparing the offerings are led to the path of life not to death. Therefore, those who come with offerings in thanksgiving to God's grace receive life through the worship service to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금요일 · Fri

03

2022 June

화목제를 통해 배우는 교훈

Lessons
learned through
fellowship offering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화목제도 번제와 같이 가축을 제물로 바쳐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만 번제와는 달리 제물 전체를 불살라 바치지 않고, 내장 주변에 있는 기름기만 불살라 드린 뒤에 나머지 고기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가 아니라, 감사와 성도 간의 화목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 새24장 왕 되신 주

묵상 · 레위기 3:1-5, 17

통독 · 레위기 3장

- 1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 2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 3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 4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 5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 17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베델연합감리교회, 한인회(CA)
산타마리아 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 남기성(C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예배, 성도 간의 교제로 마치는 것입니다

Worship Ends with Fellowship among People

화목제는 제단에 기름을 불사른 후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는 것 까지를 제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2일 안에 모두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암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는 화목제의 목적이 예배자들로 하여금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금하신 것이 있었는데,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17절)라고 하셨습니다. ‘기름’(기름진 것)은 귀한 것이기에 ‘귀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로,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데, 생명의 주인은 곧 하나님이기때문에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금하십니다(이 규례를 어기면, 그 사람은 큰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간의 교제도 제사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제사(예배)를 드린 후에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싸움은 대부분 은혜롭게(?)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는 중에 일어납니다. 음식의 맛을 두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다 받은 상처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목제의 규례에 따르면, 우리의 예배는 집례자의 축도로 ‘본당’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식당’에서 교제와 나눔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떨습니까? 나는 정말 은혜롭게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까?

The fellowship offering was defined as a ritual from the time of burning the fat at the altar until the time of sharing the meat. (All the meat should be consumed within a day or two.) That is why the fellowship offering does not care about the gender of the animal to be sacrificed. That was because the purpose of the fellowship offering was to share the meat among those preparing the offering. Nonetheless, there was something forbidden by God, “you must not eat fat and blood” (3:17) “Fat” was considered “precious” and it meant, “something precious belongs to God,” and “blood” meant “life” and God was the master of life. (Violation of this command meant severe punishment.)

God included the fellowship among worshippers as a part of the worship. That means the meals we share together after the worship must be treated as if we eat and drink in front of God. However, our reality is not like that. Unfortunately, most of our church bickering takes place at dining tables in the church after Sunday worship service that ended in grace. The cause of the bickering may be the food or hurt occurring during conversation. But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fellowship offerings, our worship service does not end with the benediction of the presider at the “sanctuary” but it ends with the fellowship and sharing among worshippers at the “dining room.” How is my worship today? Have I finished the worship today in grac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토요일 · Sat

04

2022 June

속죄제를 통해 배우는 교훈

Lessons
learned through
sin offering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4장과 5장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인 속죄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4장에는 속죄제의 기본 원리, 즉 제사장, 백성, 족장, 개인 등 신분의 차이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속죄제를 드리라는 규례가, 5장에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 넉넉한 사람은 양이나 염소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제물을 드리라는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의 세 제사(번제, 소제, 화목제)가 '자발적인 제사'였다면, 속제되는 '의무적인 제사'라 할 수 있습니다.

♪ 새28장(통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독상 · 레위기 4:2, 13-21

풍독 · 레위기 4장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13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앞으로 끌어다가

15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16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17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18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19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20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21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름 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Reading Insight

Chapters 4 and 5 of Leviticus deal with the regulation of sin offering which is a ritual to take care of the matter of sins. Chapter 4 contains the record of regulations dealing with basic principles of sin offerings and different methods of sin offerings depending on the status of worshippers: anointed priests, whole Israelite community, leader, or member of the community. Chapter 5 contains the record of how rituals should be prepared depending on the economic status of the worshippers: affluent people could offer lambs or goats, and poor people could offer pigeons as offerings. Whereas the first three rituals (burnt offering, grain offering, and fellowship offering) were “voluntary rituals,” the sin offering was a “mandatory ritual.”

🎵 Hymn28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Meditation • Leviticus 4:2, 13-21

Reading Plan • Leviticus 4

2 “Speak to the people of Israel, saying, If anyone sins unintentionally in any of the LORD’s commandments about things not to be done, and does any one of them,

13 “If the whole congregation of Israel sins unintentionally and the thing is hidden from the eyes of the assembly, and they do any one of the things that by the LORD’s commandments ought not to be done, and they realize their guilt,

14 when the sin which they have committed becomes known, the assembly shall offer a bull from the herd for a sin offering and bring it in front of the tent of meeting.

15 And the elders of the congregation shall lay their hands on the head of the bull before the LORD, and the bull shall be killed before the LORD.

16 Then the anointed priest shall bring some of the blood of the bull into the tent of meeting,

17 and the priest shall dip his finger in the blood and sprinkle it seven times before the LORD in front of the veil.

18 And he shall put some of the blood on the horns of the altar that is in the tent of meeting before the LORD, and the rest of the blood he shall pour out at the base of the altar of burnt offering that is at the entrance of the tent of meeting.

19 And all its fat he shall take from it and burn on the altar.

20 Thus shall he do with the bull. As he did with the bull of the sin offering, so shall he do with this. And the priest shall make atonement for them, and they shall be forgiven.

21 And he shall carry the bull outside the camp and burn it up as he burned the first bull; it is the sin offering for the assembly.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속죄제는 어떤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까? (2절)

Under what circumstance was the sin offering ritual offered? (4:2)

속죄제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제물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 참고: 제사장(3-12절), 회중(13-21절), 족장(22-26절), 평민(27-31절, 32-35절)

In the sin offering, the offering material was different depending on “who offered the ritual.” How different were they?

(Priests: 4:3-12, Israelite community: 13-21, Leaders: 22-26, Members of the community: 32-35)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권혁인(CA)
상향한국인연합감리교회, 송계영(C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어느 죄가 가장 무거운 죄인가?

Which Sin Is the Heaviest?

속죄제의 절차를 보면,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금지명령을 어긴 사람에게 제물의 피를 뿌리지 않고, 제단 혹은 성소나 지성소에 피를 뿌린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민이나 족장이 죄를 범하면 회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회중들이나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성소 안에 들어가 피를 뿌립니다. 또 회개하지 않는 죄는 일 년에 한번 대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머무시는 회막(성막)에다 피를 뿌리는 걸까요? 죄는 사람들이 지었는데 말입니다. 평민과 족장의 죄는 번제단을, 회중과 제사장의 죄는 성소를,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죄는 지성소를 피로 오염시킵니다. 이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굳이 죄의 무게를 따진다면, 번제단과 성소와 지성소 중에 가장 거룩해야 할 곳(지성소)을 더럽히는 죄, 곧 '고의적으로 회개를 미루는 죄'(16장)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루고 회개하지 않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기한을 넘기는 죄가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Looking at the procedures of the sin offerings, the blood of the animal sacrificed was not sprinkled on the person who violated and sinned against the forbidden command of God but was sprinkled either on the altar, or in the Tent of Meeting, or in front of the curtain of the sanctuary. If either a member of the community or a leader sins, the blood was sprinkled on the altar of burnt offering in the courtyard of the Tent of Meeting and if the Israelite community or the priest had sinned, the blood was sprinkled in front of the curtain of the sanctuary. For the sin of not repenting, once a year on Yom Kippur the chief priest sprinkles the blood in the Most Holy Place.

Why was the sacrificed animal blood sprinkled in the Tent of Meeting where God lived? Albeit the sin was committed by the people. The sins of the member and the leader corrupt the altar of burnt offering with the blood, the sins of the community and the priest corrupt the sanctuary with the blood, and the sins of the unrepentant corrupt the Most Holy Place with the blood. All these mean that our sins affect God. It implies that God's heart would be hurt by our sins.

If we rank the weight of the sins, among the altar, sanctuary and the Most Holy Place, the corruption of the Most Holy Place, that is, "the sin of intentionally delaying repentance" would be the most grievous. While we procrastinate repenting, God suffers continually. Therefore, do not procrastinate repentance. The most dreadful sin is the sin of passing the deadlin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JUNE

05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 i t l e

Blank area for writing the title.

성경 본문
S c r i p t u r e

Blank area for writing the scripture.

주요 내용
O u t l i n e

Blank area for writing the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 o d ' s V o i c e

Blank area for writing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한진호 목사(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 CA)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통독하려는 분들에게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레위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그나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인물들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며 출애굽기의 경우, 애굽에 있던 히브리인들이 모세의 지도하에서 출애굽 하는 과정이 때로는 흥미진진하고 정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읽게 되므로 그럭저럭 잘 견디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들의 결심이 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제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제물들, 또 그 제물들을 드리는 방법들이기에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다 보니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에서의 제사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굳이 그 구닥다리 옛날 제사법을 읽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들로 이 레위기를 건너뛰는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의 66권 가운데서 죄로 인하여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이 레위기에서 제시되고 있기에 이 레위기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다 용서함 받는다는 진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레위기에서 보다 자세히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레위는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삶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어느덧 우리는 늘 상 쉽게 죄를 범하게 되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하는 무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레위의 말씀 안에서 죄의 무거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 말씀을 주신 분명한 이유일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참고 견디시면서 완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 Mon

06

2022 June

속건제를 통해 배우는 교훈

Lessons learned through guilt offering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속건제와 속죄제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속건제가 하나님께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성소에 대해 손해를 입혔을 때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거짓 맹세를 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여겨져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또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하나님에게도 배상하고, 사람에게도 배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만큼은 금전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 새259장(통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묵상·레위기 5:14-19

통독·레위기 5장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5 누구든지 여호와와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16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7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와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18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9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 정상용(CA)
시온연합감리교회, 오경환(C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사람에게 배상하라. 하나님께 배상하라

Make Restitution to the Person and to God

속건제 규례에 따르면,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람에게도 배상을 하고, 하나님에게도 배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도 피해를 입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 5:23-24)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배상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배상을 할 때에는 손해를 끼친 금액에 ‘20%(오분의 일)’를 더해야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20%(오분의 일)는 ‘벌’치고는 조금 작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속건제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배상’ 보다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속건제는 죄인들에게 ‘형벌’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짓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죄를 깨닫고 뉘우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사’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of the guilt offering, when damage is inflicted on a neighbor, restitutions should be made to the neighbor as well as to God. Because all of us are connected to God, if we wrong another person, it is a wrong against God as well. That is why Jesus said, “Therefore, if you are offering your gift at the altar and there remember that your brother has something against you, leave your gift there in front of the altar. First go and be reconciled to your brother; then come and offer your gift” (Matt. 5:23-24). But so often we seek forgiveness from God only in words but do not do anything to those on whom we injure. (Many think that once we are forgiven by God, that is the end of everything.) But God is telling us that we have to make restitution if we injured our neighbor and pay a price fit for the injury.

Whenever restitutions were made to God or the people, 20% (or one fifth) must be added to the original value. Personally, I think 20% (one fifth) looks too small as a “penalty.” However, the essence of God’s interest in dealing with the guilt offering lies not in the “restitution” but in conveying the “attitude of an apologizing mind.” From this point of view, the guilt offering was not meant to “punish the sinner” but to play the role of restoring their way of life before they sinned. When we realize our sin and repent, the first thing we must do is not “to offer ritual” but to seek forgiveness from the injured person and to provide proper restitution for damages inflicted on the person.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화요일 · Tue

07

2022 June

제사장이 해야 할 중요한 일

Important
task of the pries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제사에 관한 규정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부분(1:1-6:7)과 제사장을 위한 부분(6:8-7:36)입니다. 특별히 6장은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전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번제물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제단의 불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단의 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 제사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 새338장(통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묵상 · 레위기 6:8-13

통독 · 레위기 6장

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0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11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12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여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르지며

13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어바인드림교회, 원홍연(CA)
언약교회, 이상호(CA)
목회자를 위한 기도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To Reach Holiness Every Day

제사장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하나님은 9, 12, 13절에 걸쳐 세 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번제단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통로였기에, 제단의 불은 이 통로가 끊이지 않고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표시이기도 했죠.

잠시 우리의 번제단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번제단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온 민족을 위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이를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며 백성들도 감사의 제물을 잊지 않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날마다 이어 갔던 것처럼, 우리도 “제단 위의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12절) 이 말씀은 곧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쉬지 않으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루를 만들어 갑시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of the priests was not to extinguish the fire at the altar of burnt offerings and make sure that the fire burns continuously. (This was so important that God mentioned this three times in verses 9, 12, and 13.) The burnt offerings were the pathway leading to God. The fire of the burnt offerings meant that the pathway remained connected and not cut off. It was also a sign showing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God and priests and that between God and people.

I would like to pause and look at our own altar of burnt offerings. Is the fire at our altar burning strongly and continuously without being extinguished? The priests of Israel performed burnt offerings for their people in the morning and in the evening every day. (They called these “Regular Burnt Offering.”) And the people, observing the priests, did not forget offerings of thanksgiving. As Israel continued their daily communication with God, we also need to make sure that “the fire on the altar always burns without being extinguished”.

“The fire on the altar must be kept burning...” (6:12). It means that “we need to strive to reach holiness every day.” “To reach holiness today,” let us read scripture and meditate day and night, pray continually, and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Let it be our day, every da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수요일 · Wed

08

2022 June

제사장의 몫, 백성들의 몫

Priests' portion
and
people's portio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레위기 7장은 제사장들을 위한 규정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사장들만 알아야 하는 업무 비밀(?) 같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제사장과 백성들 간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서로가 신뢰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 새595장(통372장) 나 말은 본분은

독상 · 레위기 7:28-36

풍독 · 레위기 7장

2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9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30 여호와와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31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32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33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34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혼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35 이는 여호와와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위 여호와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36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Reading Insight

Chapter 7 is full of regulations for the priests. But there is no trade secret for just the priests. Everything is open, and the Israelites clearly knew “who the priests were and what their duties were.” Through this transparency, God eliminated the possibility of misunderstanding between the priests and the people. Therefore, they trusted and cooperated with each other.

🎵 Hymn595 A Charge to Keep I Have

Meditation • Leviticus 7:28–36

Reading Plan • Leviticus 7

28 The LORD spoke to Moses, saying,

29 “Speak to the people of Israel, saying, Whoever offers the sacrifice of his peace offerings to the LORD shall bring his offering to the LORD from the sacrifice of his peace offerings.

30 His own hands shall bring the LORD’s food offerings. He shall bring the fat with the breast, that the breast may be waved as a wave offering before the LORD.

31 The priest shall burn the fat on the altar, but the breast shall be for Aaron and his sons.

32 And the right thigh you shall give to the priest as a contribution from the sacrifice of your peace offerings.

33 Whoever among the sons of Aaron offers the blood of the peace offerings and the fat shall have the right thigh for a portion.

34 For the breast that is waved and the thigh that is contributed I have taken from the people of Israel, out of the sacrifices of their peace offerings, and have given them to Aaron the priest and to his sons, as a perpetual due from the people of Israel.

35 This is the portion of Aaron and of his sons from the LORD’s food offerings, from the day they were presented to serve as priests of the LORD.

36 The LORD commanded this to be given them by the people of Israel, from the day that he anointed them. It is a perpetual due throughout their generation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은 화목제물 중 제사장에게 받을 소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말씀하십니다 (28–29절).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ut of the fellowship offerings, God mentioned the portion belonging to the priests, and said, “Tell the descendants of Israel.” (7:28–29) Why?

화목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단에 올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봉헌했습니다.

본문이 전하고 있는 두 가지 봉헌 의식(제사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30, 32절)

The breast and the right thigh of the fellowship offerings were not offered to the altar but they were offered some other way. In today’s scripture, what were the two offering rituals? (7:30, 3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열린교회, 김규현(CA)
영화연합감리교회, 강현철(C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신앙 공동체의 건강, 서로 간의 신뢰가 핵심입니다

The Health of the Faith Community Is Based on Mutual Trust

제사장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이 통로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하나님과의 만남뿐 아니라, 백성과 하나님과의 소통 또한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서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제사장은 제물의 일부를 받습니다(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몫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어떤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모든 백성들에게 이를 공개해 주십니다. 제사장의 몫을 준비하는 것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서로 간의 신뢰를 쌓으며 신앙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 공동체의 건강은 결국 서로 간의 신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자꾸만 뭔가를 감추려 하기보다는 투명하게 공유하고 나눌 때에 우리도 서로 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뿐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도 자라가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도 건강한 신앙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ask of the priests was to not extinguish the fire at the altar of the burnt offerings because the altar was the pathway between God and us. In order not to disconnect this pathway, it was as important to keep the communication channel open between the people and God as the meeting between the priests and God. They might have done their best in playing their role as priests. Based on this, the priests received a portion of the offerings. (It was the portion given by God.) God made this open to all people in order to avoid any suspicion because it was the people who prepared the portion for the priests.

This was how Israel built up their faith community as they built mutual trust. Therefore, ultimately the essence of the health of the faith community is built on mutual trust of members of the community. Then how is the health of our faith community? Is there trust between the clergy and congregation and between members of the congregation? Rather than trying to hide things from each other, when we share things with transparency and do things together, we build mutual trust. Our faith must grow toward God as well toward each other. Only then can we build a healthy faith communit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목요일 · Thu

09

2022 June

지도자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Where does the authority of a leader come from?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레위기 8장은 '지도자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의 정체성과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설정해 주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8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기에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사장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 새320장(통35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특상 · 레위기 8:4-13

통독 · 레위기 8장

4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 문에 모인지라

5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6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7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겹옷을 입히며 예봇을 걸쳐 입히고 예봇의 장식 띠를 띠워서 예봇을 몸에 매고

8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뭇을 넣고

9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 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0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1 또 제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명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2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13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Reading Insight

Leviticus 8 offers an answer to the question, “Where does the authority of a leader come from?” Today’s scripture is important in that it explains the basic relationship between the clergy and the congregation as well as the identity of the clergy. In Chapter 8, the expression, “as the LORD commanded Moses” is repeated many times. Here lies the essence of today’s scripture. Through this, it is emphasized that the authority of the priests is “delegated by the LORD.”

🎵 Hymn320 How I Praise Thee, Precious Savior

Meditation • Leviticus 8:4-13

Reading Plan • Leviticus 8

- 4 And Moses did as the LORD commanded him, and the congregation was assembled at the entrance of the tent of meeting.
- 5 And Moses said to the congregation, “This is the thing that the LORD has commanded to be done.”
- 6 And Moses brought Aaron and his sons and washed them with water.
- 7 And he put the coat on him and tied the sash around his waist and clothed him with the robe and put the ephod on him and tied the skillfully woven band of the ephod around him, binding it to him with the band.
- 8 And he placed the breastpiece on him, and in the breastpiece he put the Urim and the Thummim.
- 9 And he set the turban on his head, and on the turban, in front, he set the golden plate, the holy crown, as the LORD commanded Moses.
- 10 Then Moses took the anointing oil and anointed the tabernacle and all that was in it, and consecrated them.
- 11 And he sprinkled some of it on the altar seven times, and anointed the altar and all its utensils and the basin and its stand, to consecrate them.
- 12 And he poured some of the anointing oil on Aaron’s head and anointed him to consecrate him.
- 13 And Moses brought Aaron’s sons and clothed them with coats and tied sashes around their waists and bound caps on them, as the LORD commanded Mose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제사장 위임식은 어떤 순서로 진행
됩니까? 빈칸을 채워보세요.

(4-6절, 7-9절, 10-13절)

() - () - () - 속죄
제 - 번제 - 위임식 제사 - 위임식
종료

How did the ordination cere-
mony of the priests proceed?

Fill in the blanks below.

(8:4-6, 7-9, 10-13)

[] - [] - [] - sin
offering - burnt offering - or-
dination offering - end ordina-
tion

레위기 8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
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
는 말씀을 찾아 표시해 보십시오.

In Chapter 8 of Leviticus, find
the phrase, “as the LORD
commanded Moses,” and
mark them.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예수사랑교회, 이강원(CA)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정현섭(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되어야 합니다

Authority Must Be Delegated from God

레위기가 전하는 '제사장 위임식'에서 중요한 것은 '회중'입니다. 이는 제사장이 '회중'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도 바로 '회중'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제사장'들은 일곱 가지 순서에 참여합니다. 먼저는 물로 몸을 씻는 '정결 의식'을 통해 '거룩함'으로 나갑니다. 이를 통해 '세속의 자리'에서 '거룩한 자리'로 신분변경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다음 '예복'을 입게 되는데, '예복'은 제사장과 회중들에게 '제사장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시청각 자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복'을 갖춘 뒤에는 '기름을 붓는 의식'이 거행되었는데, 이를 통해 제사장은 왕과 예언자와 더불어 '기름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어떻게 회중의 지도자로 세워 가시는지를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사장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제사장적 권위' 아닐까요? 자리가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지도자들의 '거룩함'(성결함)을 통해,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In today's scripture the important part of the "ordination of the priests" is "the community." This emphasizes that the priests were standing in front of God as representative of "the community," and also it was because it was "the community" who had to recognize and accept the priests.

In the "ordination of priests," the "priests" participate in seven kinds of rituals. First, they washed their bodies through a "cleansing ritual" and went out in "holiness." Through this, their status was changed from a "secular place" to "holy place." Then they put on the "ceremonial robes." The "robes" played the role of audio-visual tool to clearly distinguish the priests from the ordinary members of the community as well as show "who the priests were, and what the priests did." After the "robing" ritual, the "anointing" ritual followed, similar to kings and prophets, and through this the priests began their ministry as "anointed" ones.

The people of Israel must have witnessed how the priests were anointed as leaders of the community through this process. Through this process, they must have clearly realized that the authority of the priests came from God. From this point of view, what the leaders of today's church really need to restore is "the authority as God's priests." The position by itself does not offer the authority. We must clearly realize and understand that the true authority is given from Heaven, through "holiness" (sanctification) of the leader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금요일 · Fri

10

2022 June

아론의 첫 제사

Aaron's first offering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7일 동안의 위임식을 거친 뒤에 제사장으로 임명되었고, 이제 처음으로 공적인 제사를 집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을 살피는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 다음, 백성들이 가져온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의 권위는 이처럼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할 때에 발휘되는 것입니다.

♪ 새68장(통32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독상 · 레위기 9:1-10

통독 · 레위기 9장

1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2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숫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3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 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4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숫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나라 하매

5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아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6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7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와의 명령대로 하라

8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9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10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꺼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Reading Insight

After Aaron and his sons completed the seven-day ordination process, they were ordained to serve as priests and were ready to make their first offering. They offered a sin offering for themselves, followed by a burnt offering and finally the fellowship offering for the people. By doing so, they showed that the authority of priesthood lies first in the proper preparation of the self and faithfully following the Lord's commands.

🎵 Hymn68 We praise Thee, O God, Our Redeemer, Creator

Meditation • Leviticus 9:1-10

Reading Plan • Leviticus 9

1 On the eighth day Moses called Aaron and his sons and the elders of Israel,

2 and he said to Aaron, "Take for yourself a bull calf for a sin offering and a ram for a burnt offering, both without blemish, and offer them before the LORD.

3 And say to the people of Israel, "Take a male goat for a sin offering, and a calf and a lamb, both a year old without blemish, for a burnt offering,

4 and an ox and a ram for peace offerings, to sacrifice before the LORD, and a grain offering mixed with oil, for today the LORD will appear to you."

5 And they brought what Moses commanded in front of the tent of meeting, and all the congregation drew near and stood before the LORD.

6 And Moses said, "This is the thing that the LORD commanded you to do, that the glory of the LORD may appear to you."

7 Then Moses said to Aaron, "Draw near to the altar and offer your sin offering and your burnt offering and make atonement for yourself and for the people, and bring the offering of the people and make atonement for them, as the LORD has commanded."

8 So Aaron drew near to the altar and killed the calf of the sin offering, which was for himself.

9 And the sons of Aaron presented the blood to him, and he dipped his finger in the blood and put it on the horns of the altar and poured out the blood at the base of the altar.

10 But the fat and the kidneys and the long lobe of the liver from the sin offering he burned on the altar, as the LORD commanded Mose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 7절)

What was the first thing that Aaron and his sons had to do as priests? (9:2, 7)

모세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까? (4절)

When during the time of making an offering did Moses say the glory of the Lord will appear to the priests? (9: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남재현(CA)
우드랜드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 황승일(C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오늘’ 나의 예배와 ‘우선순위’는?

How Are My Worship and Priorities Today?

모세는 제사를 드릴 때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라”(4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그들은 ‘오늘’ “여호와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남”(23절)을 경험합니다. 제사장의 권위와 리더십은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성실한 제사 준비를 통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려야 할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와 ‘백성이 드리는 제사’로 구별되었습니다. 이 중 제사장의 제사가 먼저였는데,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제사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제’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제사장이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감사의 제사로 ‘번제’가 드려졌습니다. 이 역시 회중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권하기 전에 제사장이 먼저 감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배자로서 우리는 종종 우선순위를 놓치곤 합니다. 내게 맡겨진 ‘사역’(사역자, 교사, 찬양대)에 집중한 나머지, 먼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예배자의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 자신을 돌아보는 일(회개)과 예배자 자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우리의 사역이 더해져야 합니다. 예배자가 자신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면서, 백성(교회)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스스로 권위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 사역자들의 권위는 ‘오늘’ 나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지켜 나갈 때 비로소 발휘될 수 있습니다.

In verse 4, Moses says, “For today, the Lord will appear to you” when they make an offering. And at the end of chapter 9, we learn that “the glory of the Lord appeared to all the people” (9:23). This shows that the authority and leadership of priests come from complete obedience of the Lord’s commands and from faithful preparation for making the offering.

The offerings by the Israelites were divided into “offering made by priests” and “offering made by people.” Of these two, the first offering was the offering made by priests. This order was important. The offering made by priests was the “sin offering” that was made in order to wash away the sins. This offering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self-reflection and self-preparation. This was followed by the “burnt offering,” intended to be a thank offering. This was another offering made by priests that was intended to show the importance of priests giving thanks before calling the people to offer their thank offerings.

As worshipers, we sometimes miss the order of priority. As we become overly focused on the ministries that we have been called to serve (as a minister, a teacher, a singer, etc), we forget what we need to do first. Although these “ministries” are all important, self-reflection (repentance) and giving our thanks to God must be done first before we carry out our ministries. Seeking to serve others (the church) while neglecting self-reflection is like claiming authority on one’s own. Let us remember that the authority that we have as ministers of worship comes from faithfully adhering to the priorities as demonstrated by Aaron and his son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토요일 · Sat

11

2022 June

제사장이 벌을 받다

The priest is punishe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제사장 위임식의 절정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영광을 경험했고, 이 일로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크게 기뻐했습니다(9:23-24). 그런데 참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회막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아론은 울음을 삼키며 잠잠히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고, (이 때문에 백성들은 아론을 대신해 슬퍼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막에 들어갈 때에 “술을 금하라”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 새484장(통533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특상 · 레위기 10:1-11

특독 · 레위기 10장

1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3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와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4 모세가 아론의 삼촌 웃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5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6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와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7 여호와와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 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8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 나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10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11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Reading Insight

At the peak of priest ordination, the glory of the Lord appeared to all the people and the people of Israel shouted for joy (9:23-24). Then an unthinkable happens. Aaron's sons Nadab and Abihu, who are themselves priests, die in the tent of meeting when they offer unauthorized fire before the Lord. Despite losing his sons, the Chief Priest Aaron does not mourn for his sons but silently carries out the work as the Chief Priest. In his place, his relatives and all the Israelites mourn for his sons. In order to prevent similar tragedy from happening again in the future, the Lord tells Aaron and his sons not to drink whenever they go into the tent of meeting.

🎵 Hymn484 Be Thou My Vision

Meditation • Leviticus 10:1-11

Reading Plan • Leviticus 10

1 Now Nadab and Abihu, the sons of Aaron, each took his censer and put fire in it and laid incense on it and offered unauthorized fire before the LORD, which he had not commanded them.

2 And fire came out from before the LORD and consumed them, and they died before the LORD.

3 Then Moses said to Aaron, "This is what the LORD has said, 'Among those who are near me I will be sanctified, and before all the people I will be glorified.'" And Aaron held his peace.

4 And Moses called Mishael and Elzaphan, the sons of Uzziel the uncle of Aaron, and said to them, "Come near; carry your brothers away from the front of the sanctuary and out of the camp."

5 So they came near and carried them in their coats out of the camp, as Moses had said.

6 And Moses said to Aaron and to Eleazar and Ithamar his sons, "Do not let the hair of your heads hang loose, and do not tear your clothes, lest you die, and wrath come upon all the congregation; but let your brothers, the whole house of Israel, bewail the burning that the LORD has kindled.

7 And do not go outside the entrance of the tent of meeting, lest you die, for the anointing oil of the LORD is upon you." And they did according to the word of Moses.

8 And the LORD spoke to Aaron, saying,

9 "Drink no wine or strong drink, you or your sons with you, when you go into the tent of meeting, lest you die. It shall be a statute forever throughout your generations.

10 You are to distinguish between the holy and the common, and between the unclean and the clean,

11 and you are to teach the people of Israel all the statutes that the LORD has spoken to them by Mose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대하는 아론과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 6절)

What were the response of Aaron and the people of Israel to the death of Nadab and Abihu? (10:3, 6)

제사를 집전하는 일 외에 제사장의 임무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10-11절)

In addition to making offerings, what are priest's other responsibilities? (10:10-11)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월서연함감리교회, 구진모(CA)
유바 사랑의 교회, 강혜성(C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제사장의 죽음 앞에서

In Light of the Death of Priest

위임식을 마친 제사장들이 ‘첫 제사’를 마친 뒤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 회막에서 죽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그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사장이 직무 중에 벌을 받아 죽은 것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깝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여겨 대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사건은 제사장의 무지와 부주의에서 온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를 정죄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대하는 아론과 백성들의 태도에도 많은 교훈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아론은 “잠잠했다”라고 합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직무를 묵묵히 수행했다는 것이죠. 저였으면 하나님께 “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심술을 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둡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을 대신해 “슬퍼하게” 해 주셨죠(6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공동체의 모습입니까? 제사장은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백성들은 제사장의 아픔과 어려움을 헤아리며 함께 슬픔을 나누는 모습이...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런 관계가 형성될 때, 그 교회는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After the ordination ceremony and making their “first offering,” some of the priests died in the tent of meeting when the Lord’s judgement fell upon them. What do you think went through the minds of the people after watching what just happened? Watching the priests who happened to be at the place closest to the Lord die, it is important for us to learn that we need to give utmost care and attention to how we approach the Lord. We should not be careless as we approach the Lord as this tragedy was caused by the carelessness of the priests.

But then again, we shouldn’t stop at simply blaming Nadab and Abihu in this story. There is also much to learn in the way that Aaron and the people responded to this tragedy. In verse 3, we learn that Aaron remained silent. This means that he tried his best to carry out his duties as the priest who represent the people to the Lord. If it were me, I would have rebelled against God saying, “I can’t do this anymore.” But Aaron put his duties as priest before his own personal feelings and gave priority to the work the Lord.

In return, the Lord comforted Aaron by having all the people of Israel mourn for his sons on behalf of Aaron (10:6). Can there be a more beautiful picture of a faithful community than this, where the priest does his best to fulfill his duty as a priest while the people truly empathize with the suffering and grief of the priest?

When those in church ministry and church family members form a similar relationship, that church will be a beautiful community of faith.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JUNE

12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 i t l e

Blank area for writing the title.

성경 본문
S c r i p t u r e

Blank area for writing the scripture.

주요 내용
O u t l i n e

Blank area for writing the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 o d ' s V o i c e

Blank area for writing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제사장으로서의 삶’

김용근 목사(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 CA)

목상말씀: 레위기 8:1-12

말씀은 계속해서 제사장을 위한 규칙과 함께 예배를 위한 가르침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며 제사장 사역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부정한 것과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레위기파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으나 오직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계속하여 읽다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여 분향하다가 죽음을 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했다는 것은 즉,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의 표현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을 돕기 전 그들 스스로 청결해야 합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다거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영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직분을 갖고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용서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관심의 상태에 빠지게 만들거나, 일상생활 가운데 희석되지 않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는 것에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월요일 · Mon

13

2022 June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Clean and
unclean foo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개인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중 11장은 소위 '음식법'을 전하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들이 구별되고 선택된 백성임을 반복적으로 일깨워 주기 위한 것입니다. 더불어 '음식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부정하거나 가증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정결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새449장(통377장) 예수 따라가며

묵상·레위기 11:39-47

통독·레위기 11장

39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40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41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 지니

42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43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44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46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47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은강연합감리교회, 홍종걸(CA)

은혜연합감리교회, 한진호(C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밥상머리 신앙교육”

Meal Table for Nurturing Faith

‘음식법’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일종의 ‘경건 훈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밥상머리” 에서부터 철저히 신앙교육을 시키십니다. 먹거리가 넉넉하지 않은 시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것에서 부터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음식법’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만 멀리하도록” (행 15:20) 했죠. 이는 “밖에서 사람에게 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막 7:15-16)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음식법’을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려는 마음만큼은 늘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부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규례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몸을 씻고, 옷을 빼는 ‘정결 의식’을 하며 저녁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사장을 부르거나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함’ 만큼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죠. 오늘 우리의 ‘부정함’도 누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결 의식’(경건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가정에서, 일터에서, 휴양지에서) ‘부정함’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경건 훈련’을 통해 자신을 정결케 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The dietary laws given to the people by God can be seen as God’s version of “holiness training.” God wanted the nurturing of faith to begin from the meal table. Even when there weren’t plenty of food to enjoy, God wanted people to be holy (set apart) from the food they eat.

During the time of early church, the dietary laws became a point of controversy. So people in the Jerusalem church were instructed to “abstain from food polluted by idols, from sexual immorality, from the meat of strangled animals and from blood” (Acts 15:20). This teaching was based on the teaching of Jesus where Jesus said, “Nothing outside of a person can defile them by going into them. Rather, it is what comes out of a person that defiles them” (Mark 7:15-16). Although we are not required to observe this dietary law, we must always seek to be holy as God’s people in our enjoyments of various food and drinks.

It is important for us to be aware that we also can be defiled at times. And according to the law, defiled person cannot go into the presence of God. (The privilege of worshipping God will be revoked when we become defiled). What, then, shall we do? We need to wash ourselves and our clothes and wait until the evening time. In the process, we do not need to call the priest or show ourselves to the priest. God provided a way for us to take care of the problem of defilement. Nobody can take care of the problem of defilement for us. The only way to deal with the problem of defilement is to practice purity and training ourselves to be holy. We need to continue to train ourselves and strive to be holy and pure in our daily life at work, at home and in all other places of lif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화요일 · Tue

14

2022 June

산모를 위한 규례

Regulations
for the woman
who gives birth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새 생명을 출산한 산모를 향해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7절을 보면, 이 규례는 분명 “여인(산모)을 위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우선 산모는 ‘부정함’ 때문에 40일(아들을 출산한 경우) 또는 80일(딸을 출산한 경우) 동안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게 됩니다(아무리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고 할지라도, 이 기간만큼은 율법이 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갓 태어난 아이도 이 기간 동안에 충분한 안정을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새315장(통512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묵상·레위기 12:1-8

풍독·레위기 12장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 3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 4 그 여인은 아직도 삼십삼 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 5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됨은 육십육 일을 지내야 하리라
- 6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일 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 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 7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 8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Reading Insight

To call a woman who just gave birth “unclean” is something that doesn’t make sense from the modern-day perspective. However, when we look at verse 7, we will learn that this regulation was given for the sake of the woman who gave birth. How is this so? First, her uncleanness will give her time to rest 40 days (if she gave birth to a boy) or 80 days (if she gave birth to a girl). (Although their culture was patriarchal, this regulation guaranteed a period of rest to the women that could not be denied or taken away.) Furthermore, it is very likely that this period of rest (purification) also provided the new born babies time to rest as well.

🎵 Hymn315 My Jesus, I Love Thee

Meditation • Leviticus 12:1-8

Reading Plan • Leviticus 12

- 1 The LORD spoke to Moses, saying,
- 2 “Speak to the people of Israel, saying, ‘If a woman conceives and bears a male child, then she shall be unclean seven days. As at the time of her menstruation, she shall be unclean.
- 3 And on the eighth day the flesh of his foreskin shall be circumcised.
- 4 Then she shall continue for thirty-three days in the blood of her purifying. She shall not touch anything holy, nor come into the sanctuary, until the days of her purifying are completed.
- 5 But if she bears a female child, then she shall be unclean two weeks, as in her menstruation. And she shall continue in the blood of her purifying for sixty-six days.
- 6 “‘And when the days of her purifying are completed, whether for a son or for a daughter, she shall bring to the priest at the entrance of the tent of meeting a lamb a year old for a burnt offering, and a pigeon or a turtledove for a sin offering,
- 7 and he shall offer it before the LORD and make atonement for her. Then she shall be clean from the flow of her blood. This is the law for her who bears a child, either male or female.
- 8 And if she cannot afford a lamb, then she shall take two turtledoves or two pigeons, one for a burnt offering and the other for a sin offering. And the priest shall make atonement for her, and she shall be clea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출산을 했을 때, ‘부정한 기간’과 ‘정결하게 되는 기한’은 아들과 딸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2-5절)

After giving birth, how were the periods of uncleanness and purification different for those who gave birth to a boy from those who gave birth to a girl? (11:2-5)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산모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6-7절)

When the period of purification is over, what did the woman who gave birth have to do? (11:6-7)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 신상만(CA)
좋은연합감리교회, 김두식(CA)
목회자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God's Gracious Consideration

당시에는 해산 중에 산모가 죽는 경우도 많았고, 갓난 아이가 사망하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출산은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기쁨의 순간이었지만, 산모와 아이에게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힘겨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은 산모와 갓난 아이는 일정 기간 안정을 취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도 받아야 했지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고, 온전히 쉬는 것을 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오늘날에도 출산휴가는 정해져 있지만, 눈치를 봐야 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배려 받기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는 여인들을 위해 하나님은 '산모를 위한 규례'를 주십니다. 산모와 아이가 온전히 안정을 취하면서 조리할 시간을 주시기 위함이었죠. 아들을 낳은 산모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그다음 33일은 정결한 기간이지만, 제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만일 딸을 낳았다면, 산모는 14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제사를 드릴 때까지 66일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당시에는 딸을 낳으면 모두가 실망을 했기 때문에 산모와 아기가 더 힘들 것을 고려해 그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대목이죠. 둘러보면 우리 주위에도 세심한 배려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도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In those days, it was not uncommon for women to die during childbirth or new born babies to die soon after their birth. So, although the birthing process meant joy to those who were watching, the whole process probably was more a matter of life and death for the women giving birth and for the babies about to be born. For this reason, it was important for the new moms and new babies to be isolated from others and take some time to rest and recuperate after giving birth. But this probably was not easy to do in a culture that was deeply patriarchal. (Even today, some women find it difficult to use their maternity leave, even though it is provided in their work places, because of the unspoken pressure.)

For these women who are not usually given the best consideration in their community, God puts in place "regulations for new moms." These regulations were given so that new moms and new babies can have time to rest and recuperate. New moms who give birth to a son are declared unclean for 7 days and are required to have 33 days of purification, during which she cannot make an offering. Those moms who give birth to a girl are declared unclean for 14 days and had to have 66 days of purification period before she is allowed to make an offering. (Giving birth to a girl was viewed as a big disappointment in those days. Thus, more time was given to recover.)

Here, we can sense the gracious consideration that God had for new moms. Do you know that there are also people around us who are in need of our gracious consideration? We should also care for these people with the heart of God that is gracious and kind. When we do, God will be glorifie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수요일 · Wed

15

2022 June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제

Regulations
about defiling
skin disease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레위기 14:1-32는 진영 밖에 있는 ‘악성 피부병’ 환자가 완쾌되었을 때, 진영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환자가 완쾌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 그 환자를 자세히 살핍니다. 그리고 정말 완쾌가 되었다면, 제사장은 정결한 새 두 마리로 의식을 행한 후, 그 사람을 진영 안으로 데려옵니다. 제사장은 그에게 7일 동안 정결 의식을 행하게 하고, 8일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새258장(통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독상 · 레위기 14:1-9

통독 · 레위기 13-14장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2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 3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왔으면
- 4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 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 5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 6 다른 새는 산 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 7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 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 8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를러 머물 것이요
- 9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Reading Insight

Leviticus 14:1-32 describes the process by which the person with defiling skin disease can return to the camp after the person has been healed from the disease. When a priest is notified that a person has been healed from the disease, the priest goes to the person who is outside of the camp to examine the person. Upon confirming the healing of the person, the priest performs a ritual using two live clean birds and the person is brought back to the camp. Once inside the camp, the healed person must remain outside of his/her tent and go through a seven-day cleansing ritual and present an offering to the Lord on the eighth day before the he/she is allowed to return to his family.

🎵 Hymn258 There Is a Foundation Filled with

Meditation • Leviticus 14:1-9

Reading Plan • Leviticus 13-14

- 1 The LORD spoke to Moses, saying,
- 2 “This shall be the law of the leprous person for the day of his cleansing. He shall be brought to the priest,
- 3 and the priest shall go out of the camp, and the priest shall look. Then, if the case of leprous disease is healed in the leprous person,
- 4 the priest shall command them to take for him who is to be cleansed two live clean birds and cedarwood and scarlet yarn and hyssop.
- 5 And the priest shall command them to kill one of the birds in an earthenware vessel over fresh water.
- 6 He shall take the live bird with the cedarwood and the scarlet yarn and the hyssop, and dip them and the live bird in the blood of the bird that was killed over the fresh water.
- 7 And he shall sprinkle it seven times on him who is to be cleansed of the leprous disease. Then he shall pronounce him clean and shall let the living bird go into the open field.
- 8 And he who is to be cleansed shall wash his clothes and shave off all his hair and bathe himself in water, and he shall be clean. And after that he may come into the camp, but live outside his tent seven days.
- 9 And on the seventh day he shall shave off all his hair from his head, his beard, and his eyebrows. He shall shave off all his hair, and then he shall wash his clothes and bathe his body in water, and he shall be clea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진영 밖에 있는 환자가 완쾌되었을 경우, 진 밖에서 행한 정결 예식은 무엇입니까? (1-7절)

When a person is healed outside of the camp, how should the person have the cleansing ceremony? (14:1-7)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 해도 환자는 자기의 장막 밖에서 며칠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까? (8-9절)

Even after the healed person returns back to the camp, how many days is the person required to wait outside the person's tent? (14:8-9)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God's Focus Is on Bringing People Back

사실 제사장들에게 ‘회막’ 만큼 ‘악성 피부병’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습니
다. 하지만 새로운 의심 환자가 생길 때마다, 제사장은 ‘회막’을 나와 병자들을
살펴야 했습니다. 증상이 완벽하지 않으면, 7일 동안 격리를 시킨 뒤에 다시 살
폈고, 7일 후에도 완벽하지 않으면, 다시 7일 동안 격리를 시킨 후에 판단을 했
습니다. 억울하게 추방을 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게 하신 것이죠.
그러다가 증상이 분명해지면, 제사장은 ‘부정함’을 선언한 후 그를 진영 밖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진 밖으로 쫓겨난 환자들이 회복되었을 때,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절차도 맡기
셨어요. 이번에도 제사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진영 밖으로 나가 환자를 꼼꼼하
게 살핀 뒤에 환자들을 위한 정결 의식과 제사를 집전합니다. 그들을 정결하게
한 뒤에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서죠.

사람들은 ‘악성 피부병’을 두려워했습니다. 전염성이 강해, 자칫하면 마을 전
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의심 환자들을 진 밖으로 내몰기는 쉬웠을
것입니다(실제로 증상이 비슷해 추방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 병자들을 억울하게 내쫓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
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
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For priests, there is no safer place from contracting the defiling skin dis-
ease than the “Tent of Meeting.” But whenever there was a case of possi-
ble infection, priests had to leave the Tent of Meeting to look after the dis-
eased. When the symptoms of the disease were questionable, people
were isolated for seven days and they were reexamined. If the symptoms
were still not perfectly clear after seven days, they were isolated seven
more days before a decision is made. Great care was taken to avoid
wrongfully sending the diseased people away outside the camp. When the
symptoms of the disease became clear and certain, the priest declared the
person “unclean” and the person is sent away outside the camp.

However, the function of the priest does not end here. God also made
priests to watch over the process of bringing the diseased people back into
the camp once they were healed from the disease. The priests were re-
sponsible for carefully examining the diseased people outside the camp
and performing a cleansing ceremony as well as making an offering when
they are healed, so that they may eventually be returned to their families.

People were afraid of the defiling skin disease. Because such disease
was highly contagious, putting the entire community in danger once it
breaks out, it was probably very easy to send the diseased people away
outside the camp. (There were many cases where people were sent away
because they showed similar symptoms.) For this reason, God provided a
detailed instruction on how to avoid wrongfully sending people away as
well as how to bring the healed people back. God's focus was on bringing
people back than sending them away.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주사랑연합감리교회, 김태호(CA)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 김범수(C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목요일 · Thu

16

2022 June

부정함, 부정, 보이지 않는 사생활로부터 시작됩니다

Uncleanness
begins with our
invisible private lif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레위기 11장이 '음식법', 즉 '식탁'에 관한 내용이라면, 15장은 '잠자리'에 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곳 모두 가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하나님은 이곳들이 정결해야 공동체가 정결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이 정결해야 공동체도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악성 피부병의 경우에는 접촉하지 않아도 부정하게 되지만, 유출병의 경우는 직접 접촉을 해야만 부정하게 됩니다.

♪ 새310장(통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특상·레위기 15:2-12

통독·레위기 15장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3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 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 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4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5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6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7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8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9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10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1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2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영(CA)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 김영래(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나의 내면이 정결해야 공동체도 정결해 집니다

When My Inner Self Is Clean, the Community also Becomes Clean

성경이 유출을 '부정한 것'으로 보는 이유는 그것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피'가 몸 밖으로 유출되면 사람은 곧 죽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유출은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에 '생명'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죠.

몸에 유출이 있는 사람은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접촉하거나 이 사람의 물건에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접촉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유출이 있는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누구와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한 사람이 부정해지지만, 손을 씻은 후에는 부정이 전달되지 않았죠(11절). 따라서 유출병이 있더라도 손만 잘 씻으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혹 부정하게 되었을지라도 몸을 씻고 기다리면, 저녁 이후에는 정결하게 되었음).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저들을 벌하고 내쫓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생활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우리가 깨닫고 좀 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뿐입니다.

The reason the Bible sees bodily discharge as "uncleaness" is because it is associated with "death." "Blood" is life. However, when "blood" leaks out of the body, the person will soon die. In this sense, they are pronounced "unclean" because a leak is driving the person to "death." Therefore, we can see that God wants the community of faith to be filled with "life."

A person with discharge from the body is "unclean". And anyone who touches this person or comes into contact with this person's things becomes unclean. But not all contact was unclean. If the person with the discharge came in contact with someone without washing their hands, the contact became unclean, but uncleanness was not transmitted after washing their hands (15:11). Therefore, even if there is unusual bodily discharge, as long as you wash your hands well, there is no problem in your daily life with other people. (Even if it becomes unclean, if you wash your body and wait, it will be clean.)

God's intention is not to punish or drive them out now. However, He wants us to become more mature believers by realizing that no matter how private a personal life is, it does not end as our problem alone, but affects the whole communit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금요일 · Fri

17

2022 June

대속죄일

The day
of atonemen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욘키푸르)에 대한 규례를 전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제의 피를 뿌리며 그곳을 정화시키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살아 있는 염소에게 백성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 백성들의 죄를 말끔히 씻어냅니다(이로써 백성들은 용서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 새261장(통195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특상 · 레위기 16:2-10, 29

통독 · 레위기 16장

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3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4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쓰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5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6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7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8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9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10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 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29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십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 김용근(CA)
태평양연합감리교회, 이도원(C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Day of Atonement: “Have Confidence in Forgiveness”

하나님은 유대력으로 매년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 달력으로 9-10월의 추수기로, 나팔절과 장막절 등 연중 가장 풍요로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한 날을 정하셔서, 본토인이든지 거류민이든지 “스스로 괴롭게 하라.”(29절)고 말씀하십니다. 일 년 중 가장 낙낙하고 흥겨워야 할 시기에 하루를 정하여 근신하고,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비는 날로 삼으라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날’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었습니다. 간절히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어 여전히 용서를 구하는 자들도 많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용서의 확신’을 심어 주시기 위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준비케 하십니다. 그리고 살아 있는 염소 위에 자기들의 죄를 얹고,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며, 죄를 “떠나보내는” 의식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자기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 주시려는 것이었죠.

‘아사셀의 염소’가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가 완전히 떠났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이처럼, 회개하지 않은 죄와 여전히 그들 안에 남아 있는 죄를 “떠나보내며”, ‘용서의 확신’을 갖는 날이었습니다.

God set July 10 (according to the Jewish calendar) to be observed as the “Day of Atonement.” This is the harvest season of September–October on our calendar, and it is the most prosperous time of the year, such as the Feast of Trumpets and the Feast of Tabernacles. However, at such a time, God identified a day and said, “you must deny yourselves” (16:29), whether you are a native or a foreigner. He told them to set aside a day during the most prosperous and exciting time of the year to be a day when they are sober, repent of their sins, and pray for forgiveness. Israel had dealt with all unrepentant sins “on that day.”

But there were still unresolved sins in them. Although they repented earnestly and asked for forgiveness, there were still many people who did not have “confidence in forgiveness” and still asked for forgiveness. God prepared a “goat for Azazel” in order to instill “confidence of forgiveness” in these people. The priest put their sins on a live goat, sent the goat into the wilderness, and performed the rite of “casting away” the sin. This was to convince the people that their sins were completely forgiven.

Watching the “goat of Azazel” walk away, Israel could be convinced that “their sins were completely taken away, and all their sins were forgiven.” Thus, the “Day of Atonement” was the day when they “set aside” unrepentant sins and their still unresolved sins, and they received the assurance of forgivenes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토요일 · Sat

18

2022 June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God,
the lord of lif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짐승을 잡는 이유는 사실 고기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고기가 먹고 싶어서 짐승을 잡을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화목제를 드리고,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화목제의 핵심 절차는 제물의 피를 제단 아래 붓는 것으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생명을 돌려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 없이 마구잡이로 짐승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며, “피 흘린 자”(4절)가 되는 것입니다.

🎵 새270장(통214장) 변창는 주님의 사랑과

묵상 · 레위기 17:1-9

통독 · 레위기 17장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2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 3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 4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와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 5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 6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문 여호와와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 7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 8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 9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 강현중(CA)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 선티퍼(C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먹는 것도 거룩해야 합니다

Eating Must Be Holy

레위기 17장은 짐승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으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먹기 위해 짐승을 잡을 때에도 짐승의 피를 받아 그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화목제를 드린 후 먹게 하셨습니다. 화목제는 내장의 기름기만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제물의 피를 제단 아래 붓는 것인데, 이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 짐승의 생명을 드립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다 먹지도 못하면서, 닥치는 대로 잡아죽이고, 이웃들과 나누지도 못하는 우리의 악한 심성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만 정한 절차에 따라 도살하게 하신 것이죠. 홀리스(샌드위치) 사역을 통해 '거리의 순례자들'로부터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받아 가려고 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받아 가더군요. '이미 먹었다'고, '지금 먹을 것이 있다.'라고 거절을 당한 적도 많았죠. 그들은 마치 자기가 먹을 것이 매일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아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먹거리에 관한 규례를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을 때에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매일의 양식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욕심을 부릴 필요도,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딤후전 4:4) 되는 것입니다.

Leviticus 17 says that the life of animals is also God's and should be cherished. Even when they killed an animal to eat, God made them eat the meat only after they first received the animal's blood to offer a peace offering in order to return its life back to God. For the peace offering, only the fat of the intestines was burned on the altar, and the rest of the meat was shared. At this time, the important thing was to sprinkle the blood of the sacrifice on the altar, which has the meaning of "giving the life of this beast to God, the Lord of life."

God seems to be well aware of our evil nature of killing animals only for ourselves, which is why we do not even share with our neighbors. That's why He made them slaughter only the necessary amount according to the established procedure. We have lessons learned from "street pilgrims" through the homeless ministry. They don't want to take more; they just take what they need at that time. There were many times they rejected my favors saying, "I already ate," and "I have something to eat now." It was as if they knew where their food was coming from every day.

God gives regulations regarding food and says, "The people of God must be holy even when they eat." For him who knows that his daily bread comes from heaven, there is no need to be greedy and no need to struggle for food. It is simply "received with thanksgiving" (1 Tim. 4:4).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JUNE

19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 i t l e

[Blank area for Title]

성경 본문
S c r i p t u r e

[Blank area for Scripture]

주요 내용
O u t l i n e

[Blank area for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 o d ' s V o i c e

[Blank area for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너희는 기록하라’

조숙희 권사(아틀란타한인교회, GA)

한국에서 오랜만에 교회 친구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는 대학시절 듀엣으로 가요제에 나가자고 할 만큼 세상 노래를 즐겨 부르던 사이였습니다. 둘이서 영화관이나 콘서트장에도 열심히 쫓아다녔지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는 변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문화를 즐기는 듯했어요.

만약 예전의 저였다면 맞장구를 치며 이야기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 시절,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세상 문화를 더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전 더 이상 친구와 같은 마음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성령 은혜받은 후 가장 먼저 내려놓은 게 세상 문화였으니까요. 물론 제가 한 게 아니었죠.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친구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다면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세상 문화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니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과 영이 매여 있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세속 문화를 즐길 때가 많았으니 회개해야 했습니다.

‘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세상을 향한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레 19:1-2)”

레위기 19장은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2019년 6월 23일 본문이기도 하지요.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대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요. 더 이상 거룩한 존재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고 우리는 예수 보혈을 통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일까요? 그렇다면 뭐 하러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거룩’이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주의 뜻을 향한 보다 적극적인 순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아를 철저히 못 박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비로소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성화’의 과정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존재로의 회복’입니다. ‘거룩’ 즉 하나님의 형상 대로 회복되는 것만이 우리를 온전히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명하시며 그 이유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지요. 즉 ‘거룩하라’는 명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3년 전, 성령께서 주신 메시지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내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 하는 일이 된다. 먼저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내 인도함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스스로 하는 일에는 열매가 없고 상도 없으리니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으리라. 너희는 거룩함을 회복하라. 그것이 마지막 때 내 인도함을 받는 길이다.”

월요일 · Mon

20

2022 June

가정이 살아야 공동체가 삽니다

When the family
prosper,
the community
prosper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레위기 18장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 지'를 간결하게 제시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기에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부적절한 성관계가 가정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 새559장(통305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독상 · 레위기 18:2-5, 24-30

풍독 · 레위기 18장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3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4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5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24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25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26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의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27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28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29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30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Reading Insight

Leviticus 18 succinctly presents “what Israel must forsake and what must be followed.” In particular, God says that Israel, God’s people, is a holy people and should not engage in “inappropriate sexual relations.” This is because inappropriate sex destroys not only the family, but the entire community.

🎵 Hymn559 All Year in Our Home the Spring Breezes Blow

Meditation • Leviticus 18:2-5, 24-30

Reading Plan • Leviticus 18

2 “Speak to the people of Israel and say to them, I am the LORD your God.

3 You shall not do as they do in the land of Egypt, where you lived, and you shall not do as they do in the land of Canaan, to which I am bringing you. You shall not walk in their statutes.

4 You shall follow my rules and keep my statutes and walk in them. I am the LORD your God.

5 You shall therefore keep my statutes and my rules; if a person does them, he shall live by them: I am the LORD.

24 “Do not make yourselves unclean by any of these things, for by all these the nations I am driving out before you have become unclean,

25 and the land became unclean, so that I punished its iniquity, and the land vomited out its inhabitants.

26 But you shall keep my statutes and my rules and do none of these abominations, either the native or the stranger who sojourns among you

27 (for the people of the land, who were before you, did all of these abominations, so that the land became unclean),

28 lest the land vomit you out when you make it unclean, as it vomited out the nation that was before you.

29 For everyone who does any of these abominations, the persons who do them shall be cut off from among their people.

30 So keep my charge never to practice any of these abominable customs that were practiced before you, and never to make yourselves unclean by them: I am the LORD your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본문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입니까? (2, 4, 30절)

The phrase “I am the LORD your God” appears frequently in the text. According to this passage,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Israel? (18:2, 4, 30)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4-25절, 28-29절)
“Do not defile yourself.” What happens to them if they break the command? (18:24-25, 18:28-29)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희망교회, 김정민(CA)
하스페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 최대일(C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하나님과 상관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Are You Living Your Life as a Person Who Has Something to Do with God?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2, 4, 30절)라는 말과 이의 축약 형태인 “나는 여호와다”(5, 6, 21절)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집트의 풍습과 가나안의 풍습을 금하십니다. 이집트와 가나안의 풍습에는 성적인 문란 행위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살리라”(5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30절에 비추어 볼 때, 이 말씀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경우, 이를 어긴 사람은 더러워지게 되고, 땅도 더러워지게 되며, 오염된 땅은 그를 토해낼 것입니다. 그 땅에 살아가던 가나안이 추방을 당한 것처럼 말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사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쫓아낸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 땅이 그들을 토해 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남들보다 뛰어났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님, 아무 상관도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Through the phrase, “I am the LORD your God” (18:2, 4, 30) and its abbreviated form, “I am the LORD” (18:5, 6, 21), God discloses His relationship with Israel. God revealed Himself as the “God of Israel” and made Israel His people. He forbids them from following the customs of Egypt and Canaan because the customs of Egypt and Canaan were often sexually promiscuous.

God said, “for the person who obeys them will live by them” when Israel obeyed God’s ordinances and laws (18:5). In light of verses 24-30, these words meant “inhabiting without being driven out of the promised land.” But if God’s command is broken, the one who breaks it will become unclean, the ground will become unclean, and the contaminated land will vomit him out. Just like the Canaanites who lived in that land were expelled. From this point of view, the Canaanite people were not driven out by Israel, but the earth vomited them out because they sinned.

It was by no means reasonable for Israel to live in the “Promised Land.” It wasn’t because they were better than others. The only reason they could live as God’s people was because of their relationship with God. How am I living today? Are you living as someone who has something to do with God? Or are you living as someone who has nothing to do with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화요일 · Tue

21

2022 June

“너희는 거룩하라”

“Be holy”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19장은 “너희는 거룩하라”(2절)는 말씀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를 다룹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1)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2)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3) 교제하며 베푸는 것입니다. 19장이 전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가정’(3-4절)과 ‘성전’(5-8절)에서 그리고 ‘일터’(9-10절)에서의 경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새288장(통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특상 · 레위기 19:1-10

통독 · 레위기 19장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거룩함이니라
- 3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 4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 5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 6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 7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 8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 9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 10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 주활(CO)
덴버연합감리교회, 이선영(CO)
목회자를 위한 기도

“과로를 열정으로 포장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To You Who Are Living in “the Era of Packaging Overwork with Passion”

“거룩한 삶” 그러면 우리는 보통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것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삶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실천해 나가야 할 곳은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경외’라는 말과 “부모를 경외하라” 할 때 ‘경외’라는 말을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는 자식들이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만큼 ‘부모 공경’이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또 ‘분주함’이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은 ‘안식’을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죄악시하죠. 그래서 일부러 ‘과로’를 하고, 가끔은 그걸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빠른 속도’와 ‘분주함’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안식’이 꼭 필요합니다.

‘거룩함’이란 오늘 우리의 일상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바꾸어 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 가기 위해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인가요?

The phrase “holy life” usually conjures up something abstract and ideal. However, the Bible says that the place where we should practice our holiness is at home. The Bible uses the same word for “fear” when it says “fear God” and when it says “fear your parents.” This also means that when children interact with their parents, they should treat them as if they were dealing with God. That is why “honoring our parents” is so important in maintaining our “holiness.”

The Israelites also realized that “busyness” hindered their spiritual growth. So, the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rest”. However, busy modern people are afraid of “rest”. They consider it a sin to rest without doing anything. So they deliberately “overwork” and sometimes even enjoy it. But “fast speed” and “busyness” can’t give us anything. We need “rest” in our lives.

“Holiness” means turning the language of our daily life into the language of faith. God is telling us today that we must be holy. These words are not a request, but a command. As we meditate on the Word today, what do we need to do to achieve that “holiness” in our homes, churches, and workplace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수요일 · Wed

22

2022 June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다

Set yourselves
apart to be holy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레위기 20장은 18장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두 본문에는 14가지 범죄들이 공통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18장이 이러한 범죄들을 예방하려는 의도로 쓰였다면, 20장은 이를 범한 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18장은 가족을 향해, 20장은 처벌을 이행해야 할 공동체를 향해 주신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336장(통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특상·레위기 20:9-16, 26

통독·레위기 20장

9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0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1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12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13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4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르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15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16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26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 전병욱(CO)
푸에블로한인교회, 최윤선(CO)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용서치 않으시는 이유

Why You Cannot Be Forgiven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해 고통을 주는 일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륜, 패륜, 근친상간 등으로 가정이 깨지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는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하나님은 ‘가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사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설령 눈치를 챘다고 해도 가문의 체면 때문에 이를 공공연히 끄집어 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못 본체 하는 사람”도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4절)라고 말씀하십니다. 건전하지 못한 것은 끄집어내 공동체가 처벌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남의 가정사(?)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관여하실 필요가 있나요? 이는 불건전한 성관계가 나와 상대방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문제가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커다란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용서치 않으시고,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심각하고 무거운 죄로 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마 10:28)

It is not uncommon for a member of the family to exert physical force on another member or to inflict suffering through psychological abuse. It is common for families to break up due to infidelity and incest. But it seems that this is not just a problem today. This became a very serious problem for the Israelites, thus God gave “special measures for the family.”

How will people know what is happening in the home? Even if someone had noticed, it would not have been easy to bring it up publicly because of the family’s reputation. That is why God says “If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close their eyes” also “cut them off from their people” (20:4). What is unhealthy is brought out into the open and let the community punish it.

But is it necessary for God to be so involved in people’s family affairs? This is because degrading sex can ruin not only you and your partner, but the entire community. Also, because this problem became a great obstacle for Israel to live as a “holy people.” So, God didn’t forgive this and said, “... are to be put to death.” He saw it as a serious and grave sin. Then how do I apply it? “Fear only God, who can destroy both soul and body in hell” (Mt 10:28).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목요일 · Thu

23

2022 June

제사장의 정결

Priest's cleansing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야 한다면, 제사장은 더욱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죽음'(죽은 자 숭배)을 멀리하고, 결혼에 있어서도 일반 백성들과는 달리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가족도 여기에 버금가는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새217장(통362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독상 · 레위기 21:1-9

통독 · 레위기 21장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 2 그의 살붙이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 3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 4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 5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 6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와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 7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 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 8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 9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지니라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한미연합감리교회, 한동수(CO)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 최영(CT)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제사장의 리더십, '거룩함'에서 옵니다

The Leadership of the Priests Comes from "Holiness"

하나님은 '자기 몸을 더럽힌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부정한 시체나 여인과 신체적으로 접촉해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대제사장은 훨씬 더 엄격해서 부모와 자녀, 형제와 가까운 친족의 장례에 참석하는 것도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소를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제사장의 '거룩함'은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출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인 우리가 예배자로서 '각자의 자리'를 지킬 때 비로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 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만나는 대상(사람)도 정결해야 합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정결하지 못한 여인과 관계를 맺게 되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었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도 구별해야 합니다(그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정결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한데,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일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자리'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직을 주시며 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사장의 '리더십'은 '거룩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 잘 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God said, "A priest who has defiled himself cannot enter the sanctuary." In particular, a priest must not defile himself by touching an unclean corpse or woman. For a high priest it was even stricter because he was not even allowed to attend the funerals of his parents or children, brothers or close relatives. It is because he had to guard the sanctuary. Through this, we can see that the "holiness" of the priest started from "keeping one's role" (as his priest). The same is true of our "holiness." It can only be maintained when we as pastors and believers keep our "places" as worshipers.

The priest also had to be clean with the person he met in order to maintain "holiness." If the priest had sex with an impure woman, that would be a big problem. In order to serve God properly, we must choose the people we spend time with. (You can tell who that person is by observing the kind of people who gather around them.) It is not easy for me to purify myself if my surroundings are full of unclean things.

The priest's "office" was given from birth. God gave Aaron the position of priest which was passed to his descendant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However, the "leadership" of the priest comes from "holiness." What God wants from us is not to become a "good priest," but to become a "holy priest" who does not profane God's nam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금요일 · Fri

24

2022 June

거룩한 음식과 제물

The sacred food
and offering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레위기 21장과 22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야 하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중 22장은 '제사 음식(거룩한 음식)에 관한 규례'(1-16절)와 '제물(예물)에 대한 규례'(17-33)를 가르쳐 줍니다.

🎵 새50장(통기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특상 · 레위기 22:1-9

풍독 · 레위기 22장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2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 3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 4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 5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 6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 7 해 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 8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 9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Reading Insight

Leviticus 21 and 22 tell us how those who are set apart “for the glory of God” should serve God, how they should live, and how to sanctify God’s name. Of these, Chapter 22 teaches “the rules for the sacred food” (1–16) and “the rules for the sacrifices” (17–33).

🎵 Hymn50 All to Jesus I Surrender

Meditation • Leviticus 22:1–9

Reading Plan • Leviticus 22

- 1 And the LORD spoke to Moses, saying,
- 2 “Speak to Aaron and his sons so that they abstain from the holy things of the people of Israel, which they dedicate to me, so that they do not profane my holy name: I am the LORD.
- 3 Say to them, ‘If any one of all your offspring throughout your generations approaches the holy things that the people of Israel dedicate to the LORD, while he has an uncleanness, that person shall be cut off from my presence: I am the LORD.
- 4 None of the offspring of Aaron who has a leprous disease or a discharge may eat of the holy things until he is clean. Whoever touches anything that is unclean through contact with the dead or a man who has had an emission of semen,
- 5 and whoever touches a swarming thing by which he may be made unclean or a person from whom he may take uncleanness, whatever his uncleanness may be--
- 6 the person who touches such a thing shall be unclean until the evening and shall not eat of the holy things unless he has bathed his body in water.
- 7 When the sun goes down he shall be clean, and afterward he may eat of the holy things, because they are his food.
- 8 He shall not eat what dies of itself or is torn by beasts, and so make himself unclean by it: I am the LORD.’
- 9 They shall therefore keep my charge, lest they bear sin for it and die thereby when they profane it: I am the LORD who sanctifies the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 바친 ‘제사 음식’(the sacred donations)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16절)
Who can eat the sacred donations offered to God? (22:1–16)

성경이 전하는 “흠 없는” 제물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17–33절)
If we apply the “blemish free” offering of the Bible to our lives today, how would that look?
(22:17–3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새생명교회, 신승호(CT)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 김정환(CT)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정결’, 제사장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Cleanliness” Is a Matter of Survival for Priests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거룩한 음식’과 ‘제물’을 통해 드러납니다. ‘거룩한 음식’이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음식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이를 ‘정결함’으로 받고,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흠 없고 정결한 짐승”으로 정성을 다해 바쳐야 했죠.

‘거룩한 음식’은 정결한 상태에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상태로 먹을 경우, 이는 곧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어 “끊어지는” 형벌로 이어졌죠. 제사장의 가족도 정결하지 못하면,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사장의 ‘정결’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땅을 분배 받지도 못했고, 다른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음식’까지 먹지 못하게 된다면, 제사장과 그의 가족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제사장의 능력이 ‘정결함’에서 오고, 제사장과 그의 가족은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에게 ‘정결함’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육이 죽고 사는 문제였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끊어짐’을 면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정결함’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God and Israel have a special relationship. God sanctifies Israel, and Israel sanctifies God. This relationship is revealed through the “sacred food” and “sacrifice.” The “sacred food” is food given to the priest by God. Therefore, the priest should receive it in the state of “cleansing” and not belittle it. Also, the “sacrificial offering” to God had to be offered with all sincerity as a “clean, blemish-free animal.”

“Sacred food” can only be eaten in a state of purity. If eaten in an unclean state, it would soon profane the name of God, leading to “cutting off” punishment. If the priest’s family was also unclean, he could not eat sacred food. In this respect, the priest’s “cleansing” was a “problem of survival.” (Because the priest and his family would be in great trouble if they couldn’t even eat “food” when they had no land and no other income.)

God made it clear that the power of the priest comes from “cleansing” and that the priest and his family should take the lead in “cleansing” the people. So what about us as “a royal priesthood”? For the priest, “cleanliness” was not a matter of choice, but a matter of life and death of spirit and body. How about us? Will we ever be able to avoid being “cut off”? Today, “cleanliness” should be our top priorit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토요일 · Sat

25

2022 June

거룩한 삶,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The sacred life
is about
discerning the tim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레위기 23장부터는 모든 백성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은 '절기', 곧 시간의 구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두 번의 추수(봄, 가을)와 관련이 있습니다. (추수가 두 번인 것은 이스라엘의 기후 때문입니다.) 본문이 전하는 절기는 '안식일'로 시작해,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과 '칠칠절', '나팔절(새해)', '속죄일', '초막절' 순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 새623장 주님의 시간에

특상·레위기 23:1-8

통독·레위기 23장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와 절기들이니라
- 3 옛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쉼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와 안식일이니라
- 4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와 절기들이니라
- 5 첫째 달 열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와 유월절이요
- 6 이 달 열닷셋날은 여호와와 무교절이니 이레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 7 그 첫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 8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하트포드한인교회, 최운돈(CT)
멜라웨어한인감리교회, 송종남(DE)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나의 시간은 온전히 구별되어 있습니까?

Is My Time Fully Set Aside?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세상살이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는 시간을 구별해 두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시간을 성별하고, "성회"로 모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했습니다. 이중 '안식일'은 가장 기본적인 절기였죠.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제외하고, 모두 일곱 번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시간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일주일 단위로, 1년 단위로 절기를 지키며, 시간을 구별했고, 삶을 구별했습니다.

"아무 노동(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일상에서 잠시 '물러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분주한 삶에서 '물러남'이 없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나의 캘린더는 어떤 날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공휴일, 각종 기념일, 중요한 만남 등 내게 필요하고 중요한 날들만 가득하지는 않나요? 망각하기 쉬운 시간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섭리를 잊지 않도록 구별된 시간, '절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안식일(주일)을 힘써 지키는 일로 구별된 삶을 시작해 보면 어떠시겠습니까?

Israel's "festivals" were a "time set aside" for God. This is to set aside time to remember only God in the midst of a busy world. Through this, Israel sanctified the time and gathered as a "sacred assembly" to worship and thank God for His grace. Among them, the "Sabbath" was the most basic feast. Israel met seven times in all, except on the Sabbath. For them, this time was a time to seek God in their daily life and a time to experience God's presence. They kept the festivals in units of a week and a year and set aside the time and the way of life.

The phrase "Do not do any work" means to "step away" from daily life for a while and check your spiritual condition. It is impossible to maintain a holy life without "retreating" from your busy life. Half of the year has already passed. What is the second half of my calendar scheduled with? Are there only events that are necessary and important to me, such as holidays, anniversaries, and important meetings? To those of us who easily forget, God teaches us to set aside time (the "feasts"), so that we do not forget the grace and providence that He has given us. Why don't we begin with a schedule that allocates observing the Sabbath (Sunda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JUNE

26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 i t l e

[Blank area for Title]

성경 본문
S c r i p t u r e

[Blank area for Scripture]

주요 내용
O u t l i n e

[Blank area for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 o d ' s V o i c e

[Blank area for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6월입니다

송희섭 목사(아틀란타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 GA)

6월입니다. 만물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막혔던 우리의 일상이 서서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권 읍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읍입니다. 이름처럼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태어날 때 다리의 뼈가 종이처럼 휘어지는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6살 때 첫 수술을 했는데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수십 번의 수술과 투병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벌레보다 못한 존재구나! 벌레는 움직이기라도 하지 나는 움직이지 못하고 천장만 보고 누워 있어야만 하는데 나는 벌레보다 못하구나!”

이런 와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절망 가운데 그저 누워만 있었는데 살아 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심령을 터치하시는데 저절로 고백이 나왔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 이라. (시 69:30-31)”

그때부터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3시간, 가슴속에 있는 것이 다 터져 나올 때까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임재 하시는데 엄청난 사랑으로 풀어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사람이 2006년에 신학교에 갔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프고 힘들지만 어린아이들을 섬겼습니다.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킬링필드의 나라 아닙니까? 지뢰 때문에 두 다리가 없고 손발이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의족을 만들어주고 의수를 만들어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몸으로 어떻게 해?’ 이런 것 아닙니다. 우리의 코끝에 단 한 방울의 호흡이라도 남아 있다면 일어서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6월입니다. 눈부시게 푸르른 6월을 보며 일어나십시오. 나아가십시오.

“주의 뜻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믿음의 행위를 계속하십시오. 따뜻한 마음으로.

월요일 · Mon

27

2022 June

빛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God is the light
and the way of lif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밤중에도 성소에는 등불이 환하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시 121:3-4), 빛 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등불입니다. 또 떡상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진설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온 지파가 함께 먹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떡들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진설되었고, 이전의 떡은 거룩한 것으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 새69장(통33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묵상 · 레위기 24:1-9

통독 · 레위기 24장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돌지며
- 3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 4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 5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열두 개를 굽되 각 덩이를 십분의 이 에바로 하여
- 6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 7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 8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 9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철구(FL)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 김호진(FL)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성소의 등불과 진설병을 더욱 의미 있게 하는 것

To Make the Lamps of the Sanctuary and the Showbread More Significant

아무도 드나들지 않은 성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음) 였지만, 한 밤중에도 등불은 환하게 켜져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백성들은 연기가 적으면서 밝은 빛을 내게 하는 올리브기름을 준비해야 했고,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이를 관리해야 했죠. 또 성소의 등불을 위해 “순결한 기름”이 사용되었던 것처럼, 성소의 상에 차려 놓을 떡도 “고운 가루”로 만들어, 그 중량까지 일정하게 유지해야 했어요.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매일 확인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분 이심을 매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를 가능케 한 것입니까? 백성과 제사장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백성들의 리더로서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섬기는 자로, 그리고 성소를 맡은 자로, 성실하게 성소를 관리하고 정리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늘 뭔가 대단한 성과나 가시적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은 매일, 그리고 매주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매일(매주)의 수고와 헌신 없이 한 방(?)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맙시다.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오늘 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It was a sanctuary where no one went in (only the priest was allowed to enter), but the lamp should be lit up brightly even in the middle of the night. To do this, the people had to prepare olive oil that gave off a bright light with little smoke, and the priest had to manage it morning and evening. Also, just as “pure oil” was used for the lamps of the sanctuary, the bread to be served on the table of the sanctuary had to be made of “fine flour” to maintain a constant weight.

Through this, Israel was able to confirm that God was with them every day, and they were able to confess every week that God was the one who fed them. What made this possible? It was because of the dedication of the people and the priests. Israel’s priests did not reign as leaders of the people. As servants and stewards of the sanctuary, they faithfully managed and organized the sanctuary. As a result, God was glorified.

We always think of glorifying God through something great or visible. But God, who is the light and the life, is to be glorified through us every day and every week. Let’s not try to glorify God with one grand gesture without daily hard work and dedication. No one may recognize what you do, but God does. So today, let’s give today’s glory to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화요일 · Tue

28

2022 June

나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What is my legacy?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을 선포하시며, 그분이 이스라엘과 땅의 주인이심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누구도 이스라엘 땅과 백성들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며, 이러한 뜻을 마음에 새겨 땅이 외부로 팔려가거나, 사람이 노예로 팔려갈 때에 형제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이러한 뜻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 새435장(통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특상·레위기 25:8-17

통독·레위기 25장

8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 년이 일곱 번인 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사십구 년이라

9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10 너희는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11 그 오십 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12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13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14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15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16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17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 김종권(FL)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 백승린(FL)
목회자를 위한 기도

‘희년’을 통해 배우는 교훈

Lessons Learned from “the Year of Jubilee”

‘희년’(禧年)은 일곱 안식년을 보낸 후, 다음 해인 50번째 해를 말합니다. 히브리말로 ‘요벨’이라고 하는데, 이는 숫양의 뿔로 나팔을 불어 사람들에게 ‘희년’을 알리는 것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우리 말로는 ‘복되고 기쁜 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에게 있어 7월은 새해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그런데 ‘희년’은 새해의 첫 날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속죄일인 10일에 나팔을 불면서 시작되죠(나팔을 부는 것은 공표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희년’을 ‘복되고 기쁜 해’로 여기는 이유는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 종살이하던 그들이 완전히 해방되어 본래의 “기업”을 돌려받게 되기 때문입니다(10절). 그래서 ‘희년’의 첫날은 대속죄일, 즉 이스라엘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날로 시작을 했어요. 그들에게 ‘희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해였고, 모든 것이 원상태로 회복되는 해였죠.

‘희년’은 또 땅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해였습니다. ‘희년’에는 땅도, 땅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도 모두 쉬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짐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나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희년’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먹고살기 위해 끊임없이 일해야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희년 정신’ 만큼은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The “jubilee” refers to the 50th year following the seven sabbatical years. In Hebrew, it is called “Yobel,” which is derived from the horn of a ram to blow a trumpet to announce the “Jubilee” to the people. In our language, we can call it a “blessed and happy year.”

For Israel, July marks the beginning of the new year. However, the “jubilee” does not start with the first day of the new year. It begins with the blowing of the trumpet on the 10th, the Day of Atonement. (Blowing the trumpet is the meaning of an announcement.) The reason Israel considers the “Jubilee” to be a “Blessed and Joyful Year” is that slaves will be completely liberated from slavery due to their inability to pay their debts and will receive their original “inheritance” back (25:10). So the first day of the Jubilee began with the Day of Atonement, the day when Israel was set free from sin. For them, the “Jubilee Year” was the year of starting over by the grace of God, and everything was restored to its original state.

The “Jubilee Year” was also the year in which the land was restored and life was restored. In the Jubilee Year, the earth and all creatures on it had to rest. It was the time for them to fully recover their lives while eating the things God gave them, counting on God’s grace, and enjoying rest.

Today, we do not observe a “jubilee.” However, we must keep the “jubilee spirit” to fully confess that we live by the grace of God by breaking away from the thought that we have to work constantly to make a living and that if we do not work tirelessly, we will be eliminate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수요일 · Wed

29

2022 June

둘 중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Which of the two paths will you choos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레위기 26장은 마지막 권고의 말씀입니다. 상과 벌을 제시하시면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 결단하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음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대적하실 것입니다.

새288장(통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독상 · 레위기 26:3-13

통독 · 레위기 26장

- 3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 4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 5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라
- 6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 7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 8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 9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 10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 11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 12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 13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명에의 빛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포트피어스한인선교감리교회, 김선용(FL)
헤르난도한인교회, 윤대섭(FL)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오늘 나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Where Are My Steps Heading Today?

레위기 26:1-2는 이스라엘이 가장 철저히 지켜야 할 규례가 무엇인지 전하고 있는데요. 요약하면, 하나는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하라”라는 말은 ‘정성을 다해 모셔야 한다’는 뜻입니다(단순히 성소를 지키는 것이 아님).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신앙을 지키고, 안식일과 성소를 통해 이스라엘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갈래 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 앞에는 ‘세 가지 축복’(약속)과 ‘다섯 개의 저주’(경고)가 놓여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복은 ‘풍성한 결실’(4-5절), ‘평안함’(6-10절), 그리고 ‘영적인 축복’(11-13절)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풍요와 번영, 안녕과 평화는 다른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들의 삶의 기초를 쌓을 때 오는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이 패망을 당하고, 포로생활의 아픔을 경험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것은 결국 ‘그들 하기’에 달려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자기의 발걸음을 부지런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면(3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니실 것이고(12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면(21, 23, 27, 40절), 하나님도 우리와 반대 방향을 향해 가실 것입니다(24, 28, 41절).

Leviticus 26:1-2 depicts which rules Israel must follow most thoroughly. In summary, one is to “make no idols” and the other is to “keep the Sabbath and fear the sanctuary.” The word “fear” here means “to serve with all your heart.” (It is not simply to keep the sanctuary.) God wanted Israel to keep their faith by not making idols and to grow Israel’s faith through the Sabbath and the sanctuary.

He then commands them to choose one of the “two ways of going.” “Three blessings” (promise) and “five curses” (warning) lie before them. Those three blessings are “abundant fruit” (26:4-5), “peace” (26:6-10), and “spiritual blessing” (26:11-13). Israel’s abundance and prosperity, well-being and peace do not come from anything else. It comes only from obedience to God’s Word. It comes when they build the foundation of their lives on the Word of God.

On the other hand, what was the reason for Israel’s defeat and the painful experiences of captivity? Because they despised and did not keep the Word of God. In the end, whether Israel was blessed or not depended on what they did. Therefore, we, too, should watch our steps diligently. If we walk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26:3), God will walk among us (26:12). If we go in the opposite direction of God’s Word (26:21, 23, 27, 40), God will also go in the opposite direction from us. (26:24, 28, 41)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언덕으로



목요일 · Thu

30

2022 June

성소, 하나님의 백성이 책임져야 합니다

The sanctuary is
the responsibility
of god's peopl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레위기 26장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약속이라면, 레위기 27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일, 즉 '예물'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물에는 '자발적으로(서원하여) 드리는 것'(3-25절)과 '의무적으로(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26-33절)이 있었습니다.

새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특상 · 레위기 27:26-33

통독 · 레위기 27장

26 오직 가축 중의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27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 오분의 일을 더하여 무를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28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29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30 그리고 그 땅의 십분의 일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십분의 일은 여호와와의 것이니 여호와와의 성물이라

31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십일조를 무르려면 그것에 오분의 일을 더할 것이요

32 모든 소나 양의 십일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 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와의 성물이 되리라

33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노크로스한인교회, 박희철(GA)

뉴난한인감리교회, 남성원(G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봉헌, ‘많음 적음’에 있지 않고 ‘성숙함’에 있습니다

Consecration Is Not Based on More or Less, but Rather on “Maturity”

제사장의 역할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바치려고 하는 것(사람, 가축, 집, 땅)의 값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값을 매기게 하셨을까요? 이는 ‘누가, 어떻게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얼마를 드려야 할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사장들에게 나아갈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물(봉헌)을 드릴 때에 세금을 거두듯이 하신 것이 아니라, “서원자의 형편대로”(8절)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결코 많이 거두어들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책임지고 후원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본문은 또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도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26-27절)와 ‘하나님께 아주 바친 물건’(28-29절), 그리고 ‘십일조’(30-33절)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어린이들은 자기 것과 남의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면 자기 것이라고 고집을 피우죠. 그러다가 자라면서 자기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이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면, 우리는 아직 어린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The role of the priest is to calculate the value of what people are willing to offer (livestock, houses, land). But why put a price on it? It has to do with “Who will administer and maintain the temple?”

God instructs the people to go to the priests to ascertain “how much to give.” It was not done as a tax collected when giving a gift (offering), but was so that it could be given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vower” (27:8), God’s intention is never to reap much. However, God teaches that God’s sanctuary must be protected, supported, and protected by God’s people.

The text also tells us that there are things that everyone has to set aside and give to God: “the firstborn of the beast” (27:26-27), “anything specially set apart for the Lord” (27:28-29), and “tithe” (27:30-33). Those are not “mine,” but “belong to God.”

Young children can’t tell the difference between their own and others.’ So, even if something belongs to someone else, if they like it, they insist on owning it. Then, as they grow up, they begin to differentiate between their own and others.’ This seems to be the case with faith as well. If we claim that God’s things are ours, we are still immature in faith. Through this, God wants us to become mature believers who acknowledge the things of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순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1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

\$ 1 for every day, we are plant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개혁 운동 Nehemiah Project-Church Planting Movement
느헤미야 \$ 1 운동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교회를 세웁니다 We plant a church at a time
미래를 준비합니다 We prepare for future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God is leading our way

온라인 헌금 Online Giving

□한달 \$ 10, \$ 20, \$ 30, \$ 50 per month □하루 \$ 1 per day □한달 \$ 30 per month

여러분의 1불 헌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혁을 위해 사용됩니다.

Your \$ 1 offering will be used for church planting projects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Your offering will support for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한어회중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 영어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 차세대회중 Next generation ministry
- 다인종사역 Multi-ethnic ministry

느헤미야 운동의 교회개혁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participate into church planting projects for Nehemiah project?

-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You may give as a family.
- 자녀들과 함께 매달 드립니다. You may share with your children.
-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You would give with your credit card.
-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비과세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is gift can be listed as a tax-deductible gift for your tax report.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heck payable to Nehemiah Projec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본부 Nehemiah Project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Email contact : kumcdevotion@gmail.com

2022년 6월 기쁨의 언덕으로

소그룹 교재



-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 첫째 주 소그룹 모임 속죄제, 어떤 제사인가? | 레위기 4:1-12
- 둘째 주 소그룹 모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기 위하여 | 레위기 9:6-14
- 셋째 주 소그룹 모임 이스라엘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 | 레위기 17:1-9
- 넷째 주 소그룹 모임 '은혜' 위에 '경건'을 더하라 | 레위기 19:3-10

1 주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레위기 4:1-12

속죄제, 어떤 제사인가?



새270장(통214장) 변참는 주님의 사랑과
새258장(통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새280장(통338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 봉헌 찬송

01 여는 질문

속죄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한다면 그 이유를, 또 반대한다면 그 이유를 말해보십시오.

02 본문 이해

'속죄제'는 두 가지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하나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죠. 오늘 읽은 본문의 다음에 나오는 규례들을 보면, 제사장들과 회중들은 흠 없는 수송아지로, 족장들은 흠 없는 숫염소로, 평민들은 흠 없는 염소나 어린 양 암컷으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고운 가루 에바 십분의 일로 예물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구도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속죄제'는 이스라엘이 늘 용서받아야 할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는 제사였습니다. '속죄제'는 또 자기의 죄를 진 밖으로 '내다 버리는 제사'였어요. '속죄제'의 마지막에 제사장은 제물의 내장에서 취한 기름을 번제단 위에 놓고 불사릅니다. 그리고 남은 제물의 일부를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 '재 버리는 곳'에서 그것을 모두 소각합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이죠.

'속죄제'의 첫 번째 의미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였다면,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지키고 따라야 할 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아주 심각하고 중대하게 보고 있는데, 이는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를 깨뜨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소까지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함 가운데 계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 성소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이 백성 중에 머무실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사는 백성들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에게는 저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법' 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배를 통해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깨지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03 말씀 속으로

1. 속죄제는 어떤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까? (1-2절, 5장 1-6절)
2. 속죄제가 다른 제사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5-7절, 11-12절)

04 삶 속으로

1.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2.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나요?

05 암송 구절 에베소서 1: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06 자녀와 나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은 것이 있었나요?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했던 것은 없나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기 위하여



새212장(통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새461장(통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새213장(통348장) 나의 생명 드리니 - 봉헌 찬송

01 여는 질문

요즘 나의 최우선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02 본문 이해

‘정결 의식’ - ‘예복 입히기’ - ‘기름부음’, 이 세 단계가 끝나고 나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위임식 제사’를 드리면서 위임식은 모두 끝이 납니다. 그렇게 7일 동안의 위임식을 거쳐,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면, 8일째에 축제 분위기 속에서 ‘첫 제사’를 집례하게 되죠. 이제 막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첫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흥분이 되고, 긴장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첫 제사를 집전하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와의 명령대로 하라”(7절) 이스라엘의 제사는 ‘제사장의 제사’로 시작을 했는데, ‘제사장의 제사’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는 제사장이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 감사의 제사로 ‘번제’가 드려졌는데, 이 역시 회중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권하기 전에 제사장이 먼저 감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배자로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역’(사역자, 교사, 찬양대)에 집중한 나머지, 먼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로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회개)과 나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 이 아닐까요? 이 ‘회개’와 ‘감사’(온전한 예배) 위에 우리의 사역이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와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라”(6절)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하라’ 하셨는데 머뭇거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바른 제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빕니다.

03 말씀 속으로

1.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시켰습니까? (1-4절)
2. 이제 막 위임식을 마친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제사는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7절)

04 삶 속으로

1. 오늘 나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재조정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배움을 통해 깨달은 것을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2.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오늘 내가 훈련(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05 암송 구절 레위기 9:7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와 명령대로 하라.”

06 자녀와 나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



새9장(통53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새31장(통46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새50장(통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봉헌 찬송

01 여는 질문

나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예배자'라고 생각하시나요?

02 본문 이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거룩한 삶’이란 어떤 삶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레위기의 마지막 단락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교도들도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거나, 남을 속이면 안 된다는 규범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거짓말하거나, 중상모략을 하거나 부당하게 비난하는 것 등은 똑같이 금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며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이 정도를 하고 있다고 자기가 ‘진정한신자’라고 착각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해서 ‘참신자’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성취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 그 첫 번째는 ‘모든 희생제사는 반드시 정해진 곳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걸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제물을)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예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장소에서 정해주신 절차에 따라’ 가축을 잡으라는 겁니다. 짐승은 ‘회막 문’에서만 잡아야 되고, 제사는 ‘회막’에서만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배는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의식에 따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멋대로 예배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거룩함은 ‘예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예배는 구약의 '희생제사'에서 유래했습니다. '희생제사'란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며, 제물로 드린 고기를 예배자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희생이 수반되는 것이었죠. 잠시도 짬을 낼 틈이 없는 바쁜 삶 속에서 시간을 내어 드리는 일은 어쩌면 희생과 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이 없는 제사가 바른 제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희생이 없는 예배 또한 바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 속에는 어떤 희생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03 말씀 속으로

1. 본문에서 “회막 문”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2-3, 8절 참조)
2. 본문에는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회막 문”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4 삶 속으로

1. 하나님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예배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나의 예배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2. ‘온전한 예배’를 위해 오늘 내가 희생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05 암송 구절 레위기 17:4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와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06 자녀와 나눔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예배'가 중요할까요?

‘은혜’ 위에 ‘경건’을 더하라



새8장(통9장)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새420장(통212장) 너 성결키 위해
새623장 주님의 시간에 - 봉헌 찬송

01 여는 질문

‘거룩’이란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02 본문 이해

레위기가 전하는 ‘거룩한 삶’이란, 교회 밖에서 완성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서 ‘세상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3절). 일상에서의 “거룩함”은 먼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이 ‘경외’라는 말과 “부모를 경외하라” 할 때 ‘경외’라는 말을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는 자식들이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만큼 ‘효’가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또 ‘분주함’이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켜 왔습니다. ‘빠른 속도’와 ‘삶의 분주함’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이익은 없습니다.

둘째는 “우상을 만들지 않는 삶”입니다(4절).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기대지 말라’는 뜻입니다. 본래 믿는 구석이 많은 사람은 한 가지에 죽어라 매달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다른 것들(사람이든, 신이든)에 연결되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셋째는 “교제하며 베푸는 삶”입니다(5-8절). “화목제”는 예물을 드린 사람이 제단 앞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으로 마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가 이스라엘의 주요 제사 중 하나였다

는 것은 예배 공동체의 교제와 나눔이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축도가 아니라, '교제와 나눔'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의 '교제와 나눔'에도 '거룩함'이 묻어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2절).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 받은 우리에게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은 '가정'(3-4절)과 '성전'(5-8절)에서 그리고 '일터'(9-10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경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위에 '일상에서의 경건'을 더해 나갑시다.

03 말씀 속으로

1. 본문에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4, 10, 12, 14, 16, 18절)
2. 레위기 19장이 전하는 거룩한 삶은 크게 '하나님 앞에서'(3-10절)와 '세상 속에서'(11-18절)로 구분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04 삶 속으로

1. 내게 있어서 '거룩한 삶'이 구현되는 장소(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현장)은 주로 어디입니까?
2. 일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해야겠다고 생각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05 암송 구절 레위기 19:2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06 자녀와 나눔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Sin offering, what kind of sacrifice is it?



Let us Sing of His Love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Father, I Stretch My Hands to Thee

01 Opening Discussion

The sin offering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everyone is a sinner before God” (no one is free from sin). What are your thoughts on this? If you agree, explain why, and if you disagree, state why.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e “sin offering” served two functions. One was to atone for the sins of sinners, and the other was to purify the sanctuary. According to the ordinances in the scripture following today's passage, the priests and the whole Israelite community shall give their bulls without blemish, the elders shall give their goats without blemish,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shall give their offerings with unblemished goats or female lambs, and the poor shall give a tenth of an ephah of fine flour as offering to God. What does this mean? No one is free from the “problem of sin.” In this regard, the “sin offering” was a sacrifice that reminded Israelites they always needed forgiveness. The “sin offering” was also a sacrifice that “throws away one's sins” out of the camp. At the end of the ceremony of presenting the “sin offering,” the priest places the fat from the intestines of the sacrifice on the altar of burnt offering and burns it. Then they take some of the remaining sacrifice out of the camp and burn them all on the ash heap. This final burning means that even the last trace of sin must be eliminated.

If the first meaning of the “sin offering” was that “we are all sinners before God,” the other side of that is “God wants us to be set free from our sins.” God's people have the laws that they ultimately need to keep and follow. It is the Word of God. The Bible

views failure to live according to the Word very seriously and significantly, because sin not only causes God's wrath, and breaks the relationship with God, but also defiles the sanctuary where God dwells. But a holy God cannot be in an unclean setting. So, He cleansed the sanctuary through "sin offering" so that God could dwell among his people. Through this, the relationship with God was restored.

As people of God, we are a people who live by the Word of God. This is where we differ from the world. It means that we have "God's law" that they do not have. Through worship, we need to repent that we did not live according to the Word. Then our broken and shattered relationship with God is restored and we return to the Word of God again.

03 Into the Word

1. In what cases is the sin offering offered? (4:1-2, 5:1-6)
2. How is the sin offering different from other offerings? (4:5-7, 11-12)

04 Into our life

1. In what part of my life am I not living according to God's Word today?
2. Today we no longer offer sacrifices. This is because the way of eternal forgiveness of sins has been opened through Christ's crucifixion in the New Testament era. How do I understand and accept this?

05 Memory Verse Ephesians 1:7

"In hi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the forgiveness of our trespasse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race"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During the past week, was there anything God has told you "to do" that you haven't done? Did you do anything God told you not to do?

To experience the presence and glory of God



O Master, Let Me Walk With Thee
'Are Ye Able,' Said the Master
Take My Life, and Let It Be

01 Opening Discussion

What are my top priorities these days?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After three stages of the “cleansing ceremony” – “clothing with robes” – “anointing with oil” are completed, the “sin offering” and “burnt offering” are offered, and the “commissioning sacrifice” is offered to complete the commissioning ceremony. After a seven-day long commissioning ceremony of being appointed as a priest, on the eighth day, the priest offers the “first sacrifice” in a festive atmosphere. Imagine the hearts of the priests who have just been commissioned and are offering the first sacrifice. How excited and nervous they may have been!

God told Aaron, who presided over the first sacrifice: “Go to the altar and offer your sin offering and your burnt offering to make atonement for yourselves and for the people and offer your people's offerings to make atonement for them, as the LORD has commanded” (9:7). Sacrifice for Israel began with “The Priest's Sacrifice.” The Priest's Sacrifice began with the “Atonement Sacrifice” to resolve the problem of sin. This meant that the priest must first examine himself and prepare himself. Then, a “burnt offering” was offered as a thanksgiving offering, again so that the priest might give thanks before he advises the congregation to give thanksgiving offering to God.

As worshipers, we often miss our “priorities”. While concentrating on the “ministry” (minister, teacher, choir) entrusted to me, I forget what I need to do first. But isn't reflecting on ourselves as a worshiper (repentance) and offering our “thanks” to God more important than our “work”? Our ministry should be in addition to this “repentance”

and “gratefulness” (complete worship). “This is what the Lord has commanded you to do, and the glory of the Lord will be revealed to you” (9:6). When we do what God has told us to do, we will also see the glory of God. On the other hand, if we procrastinate when God tells us to do something, we will not be able to see the glory of God. From now on, I hope that we can all see the glory of God in the field of our respective ministry through “acceptable sacrifice.”

03 Into the Word

1. What did Moses tell Aaron and the Israelites to prepare to experience the presence and glory of God? (9:1–4)
2. What kind of sacrifice did God tell Aaron to offer upon completion of the commissioning ceremony? (9:7)

04 Into our life

1. How should my priorities be realigned today? (Apply what you learned today to your own life.)
2. What do you think you need to train (prepare) today to experience the glory and presence of God?

05 Memory Verse Leviticus 9:7

“Then Moses said to Aaron, “Draw near to the altar and offer your sin offering and your burnt offering and make atonement for yourself and for the people, and bring the offering of the people and make atonement for them, as the LORD has commanded.”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do I need the most right now to encounter God?

Israel's Road to Holiness



Heaven is Full of Your Glory
Praise Him, Praise Him
All to Jesus I Surrender

01 Opening Discussion

What does “worship” mean to you? What kind of “worshiper” do you think you are?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God says to Israel, “Be holy, for I am holy.” What kind of life was the “holy life” that God expected of Israel? As a conclusion, the last paragraph of Leviticus says, “Achieve holiness in all areas of your life.” In fact, even pagans have norms that they must not steal or deceive others. They also forbid lying, slander, or unreasonable accusations. They also teach that they should love each other and help each other. Therefore, you should not mistake yourself as being a “true believer” just because you live within rules. Just this “form of godliness” in your life does not guarantee you to be a “true believer.”

Then, what did God, who had said, “achieve holiness in all areas of life,” demand of Israel? Israel's road to holiness, the first of which was that “all sacrifices must be offered in the appointed place.” I thought God was going to say something great, but God said, “Take the (sacrifice) to the entrance of the tent of meeting and present it as a gift in front of the tabernacle of the Lord.” It is about slaughtering livestock “according to the procedure established by God” in the “place ordained by God.” Animals are to be slaughtered only at the “entrance of the tent of meeting,” and sacrifices are to be offered only at the “tent of meeting.” In other words, “worship should be held in a set place and according to a set ceremony.” It was like “Do not worship in your own way.” It is because our holiness begins with “worship.”

The worship we speak of today is derived from the Old Testament “sacrifice.” A “sacrificial

offering” is a sacrifice in which an animal is slaughtered, its blood is sprinkled on the altar, the oil is burned and offered to God, and the sacrificed meat is shared with the worshipers. Old Testament worship involved sacrifice. In a busy life where you don’t have time to spare, making time for yourself may seem like a sacrifice. However, just as a [sacrifice without worship] cannot be a right sacrifice, a worship without sacrifice cannot be a right worship. What kind of sacrifice is contained in the worship you offer today? Today, I hope that you will achieve holiness in “all areas of your life” through “worship.” For God’s people, holiness is not an “option” but a “requirement.”

03 Into the Word

1. Who were the people who needed to go to “the entrance of the tent of meeting” in the passage? (17:2-3, 8)
2. The phrases like “They led it to the entrance of the tent of meeting…” or “Bring it to the entrance of the tent of meeting…” are repeated over and over. Why do you think God puts such emphasis on “the entrance of the tent of meeting?”

04 Into our life

1. God emphasizes that we worship “at a set time, at a set place, and according to a set procedure.” In light of today’s Word, what is lacking in your worship?
2. For “full worship” what do I need to sacrifice today?

05 Memory Verse Leviticus 17:4

“and does not bring it to the entrance of the tent of meeting to offer it as a gift to the LORD in front of the tabernacle of the LORD, bloodguilt shall be imputed to that man. He has shed blood, and that man shall be cut off from among his people.”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God tells us that worship is important to live a holy life. Why is “worship” important?

Add holiness to grace



Holy, Holy, Holy! Lord God Almighty
Take Time to be Holy
In His time

01 Opening Discussion

When you hear the word “holy,” what is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What do you think “holiness” means?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e “holy life” that Leviticus conveys is completed outside the church. In other words, our “holiness” begins “before God” and is completed “in the world.” Today's text summarizes “life in the presence of God” into three broad categories.

The first is to honor your parents and observe Sabbaths (19:3). “Holiness” in daily life must first begin at home. The Bible uses the same word for “fear” when it says “fear God” and “fear your parents.” This also means that when children interact with their parents, they should “treat them as they would treat God.” This shows how important “filial piety” is in maintaining our “holiness.” Hebrews also realized that “busyness” hindered their spiritual growth. So, they kept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rest.” There is no spiritual benefit from “fast speed” and a “busy life.”

The second is “a life that does not make idols.” (19:4) “Do not make idols” means “Do not lean on any man or god.” People who have many things they can rely on never cling to one thing. If you say, “I believe in God” and are connected to other things (whether people or gods) that have nothing to do with God, then you have an “idol.”

The third is “a life of fellowship and sharing” (19:5-8). The “peace offering” is a sacrifice that ends with the person offering the gift sharing a meal together in front of the altar. The fact that the “reconciliation offering” was one of the main sacrifices in Israel indicates that fellowship and sharing in the worshipping community were important

in maintaining “holiness.” The Israelite sacrifices/worship ended with “communion and sharing,” not with a benediction. Now, we need to make sure that “holiness” is reflected in our “fellowship and sharing.”

“Be holy, because I, the LORD your God, am holy” (19:2). God tells us today that we must be holy. This was not a “request”, but a “command.” “Holiness before God” is reverence that begins at “home” (19:3–4) and “temple” (19:5–8) and “workplace” (19:9–10). Now, let’s add piety in our daily life to reflect the grace of salvation we have received.

03 Into the Word

1. In the text, God repeatedly says, “I am (your God) Jehovah.” Why do you think this is said repeatedly? (19:3, 4, 10, 12, 14, 16, 18)
2. The holy life addressed in Leviticus 19 is largely divided into “before God” (19:3–10) and “in the world” (19:11–18). What does this verse mean to you?

04 Into our life

1. Where is the main “place where the holy life is realized” (the field where the holy life is practiced) for you?
2. What do you think you should do in your “home”, “church” and “workplace” to maintain “holiness” in your daily life?

05 Memory Verse Leviticus 19:2

“Speak to all the congregation of the people of Israel and say to them, You shall be holy, for I the LORD your God am holy.”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God says, “I am the LORD your God.” Who is God to you?

MISSIONARY OF THE MONTH



Advance : # **3021957**

Country : **Tanzania**

Serving At : **Next Generation Ministries**

Home Country : **South Korea, Asia and Pacific**

Kim, Young Seon

The Rev. Young Seon (Christina) Kim is a missionary with the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erving as director of the Next Generation Ministries of the church in Tanzania, based in Dar es Salaam.

Next Generation is an effort to recruit and equip young leadership for ministry and mission in a country with a youthful population and where United Methodists shows promise of extensive growth. In 2014, Tanzania was a provisional annual conference, with plans to become a full annual (regional) conference as soon as possible within the North Katanga Episcopal Area, centered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The first United Methodist missionaries in Tanzania came from DR Congo.

Objectives of Rev. Kim's work include the preparation of pastors and lay leaders with skills in relating to young people and analysis of the youth ministries presently underway in each of the church's districts. Tanzania is a country of some 50 million people of diverse religions, including Christianity, Islam, and traditional African faiths.

Rev. Kim, a native of South Korea, is a clergy member of the Northern Illinois Annual Conference, ordained an elder in 1999. She received her theological education at Garrett-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Evanston, Illinois, graduating in 1997 with a Master of Divinity degree.

She earlier earned a Master of Arts degree in TESOL (Teachers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from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in Carbondale, and a Bachelor of Arts degree in English at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Rev. Kim is the first Christian in her family and has led other family members into the church. Her introduction to Jesus and Christian faith came in vacation Bible school when she was eight years old. At age 18, she made a commitment to missionary service. “I said to God, ‘Yes, I will go wherever you want me to go and I will do whatever you ask me to do.’”

In 1992, Young Seon came to th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to study English and prepare for missionary service. The Rev. In-Sook Hwang of the Carbondal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encouraged her to attend seminary and while there she experienced a call to seek ordination. Her first appointment was as associate pastor of South Suburban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the Chicago area, where she worked especially with English-speaking second-generation Korean Americans and also non-Korean members of the congregation. She also served several other churches in the Northern Illinois Conference, including Pioneer United Methodist Church in Park Ridge and Cherry Valley United Methodist in Cherry Valley. She also served the Manna Church of the Korean Methodist Church in Korea.

Young Seon says that she never lost her “heart’s desire to do overseas mission.” In 2011, she attended a youth conference in Kenya and felt a strong pull to service in Africa. Back home in Illinois, her bishop referred her to Global Ministries. While the process of missionary service application and acceptance was taking place, she went to Tanzania to teach English and to learn Swahili. She thanks God that she is back in Tanzania today.

“The way God has been guiding my steps is amazing,” says Young Seon. “The love God has been pouring out upon my heart is beyond my imagination.”

Contact Information : ykim@umcmmission.org

사 권 의 기도 18

김영봉 목사
와싱턴사권의교회, VA

글로 드리는 기도

‘기도 일기(영성 일기)’는 기도하는 과정에서 얻은 생각을 적는다는 점에서 보통 일기와 다르다.

리처드 포스터의 말대로, 예수님도, 프란체스코도 그런 일기를 쓰지 않으셨으니 기도 일기를 영성 생활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가치를 평가절하해서도 안 된다.

‘왜 기도 일기를 쓰도록 원하는가? 내 경험에 따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글을 쓰다 보면 단지 생각하거나 말로 표현할 때보다 훨씬 명료하게 정리되는 걸 알 수 있다. 기도하는 중 어떤 영감이 떠오르면 잠시 멈추어 적어 둔다. 하루를 지내며 묵상했던 생각들을 정리하기도 한다. 이렇게 기록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또렷하게 정리되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쓰는 과정에서 새로운 영감이 떠오르기도 한다.

둘째, 스쳐 지나가는 영감을 보존할 수 있다. 우리의 기억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깨달음 외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 그 영감을 다시 얻으려면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모른다. 따라서 중요한 영감이 왔을 때 그것을 기록하고 그 의미에 대해 묵상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셋째, 틈틈이 지나간 기도 일기를 읽는 것은 아주 좋은 묵상 방법이다. 과거의 기도 일기를 읽노라면, 분명히 내 글씨인데도 한 번

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 내용을 읽게 돼 곤 한다. 그렇다면 그 사상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신의 영감의 기록을 읽는 것은 다른 신앙서적을 읽는 것과 비슷한 깨달음을 던져준다. 물론 그외에도 다른 이유들이 많을 것이다.

“글을 쓰는 것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글을 씬으로써 우리는 주의를 집중할 수 있으며,
용솨음치는 우리의 마음과 접할 수 있으며,
생각을 정화할 수 있으며,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할 수 있으며,
과거의 경험을 되새길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을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주요한 일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 간직할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영혼의 양식’)”

처음부터 기도 일기의 유익을 충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일단 시작해보는 게 중요하다. 어느 정도 일기를 쓰다 보면 스스로 그 유익을 확인할 수 있고 필경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을 즐기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기도 일기는 어떻게 쓰는가? 시작 단계에서 지나치게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 윤양원 목사, 존 웨슬리의 일기를 읽어 보라. 한 쪽을 쓰는 경우도 있고 간단한 기도문 하나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다. 완전한 문장으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초보자들의 경우, 일기가 아니라 메모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기도 중에 혹은 기도 후에 적고 싶은 것을 간략하게 기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다 보면 생각이 깊어지고 문장력도 늘어난다.

또 하나, 매일 꼬박꼬박 써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지 말라. 특별한 영감이나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 글 쓸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면 된다. 매일 써야 한다는 압박감은 일기 쓰기를 중도에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일기 쓰기는 쓰는 과정에서 기쁨을 얻는 게 중요하다. 내 일기 한편을 예로 제시해 본다.

“여호와와는 나의 분깃이시니(시 119:57)”

나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유산이요, 중요한 재산이요, 가장 큰 희망이다.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분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허비되었을 것이요, 한낱 미물의 생과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그분이 나를 받음으로 나는 영원에 잇대어 살게 되었고 참된 인생길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니 그분 이외에 내가 무엇에 희망을 걸까?

아버지, 나의 유산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분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이 글은 시편 기도를 드리는 중에 ‘여호와와는 나의 분깃’이라는 말에 붙들렸을 때 적은 생각이다. 기도는 기록을 통해 명료해지고 그 기록은 다시금 기도를 북돋운다. 이런 경험을 하면 기도 일기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기도 일기는 ‘글로 드리는 기도’이다.

편집자주

2021년 김영봉 목사의 ‘사귀의 기도(IVP)’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성도들에게 ‘바른 기도’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귀이 체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리즈를 연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영봉 목사님과 IVP-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에 감사드립니다.

Memo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에벤에셀 하나님, 나의 하나님 (2)

김희련 집사_뉴난한인교회, GA

2021년 3월 16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사십 오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팔십 오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 14:10~12〉

갈렙의 고백이 너무나 은혜가 된다. 그는 우선 광야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존케했다고 고백한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85세가 되었지만 45년 전보다 강건하니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한다. 내 나이 85세에 이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40이란 나이에도 벌써 몸을 사리려 하는 일들이 있음이 부끄럽다. 갈렙의 의지와 도전이 부럽고 본받아야 할 일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 성이 크고 견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쫓아낼 수 있다고 한다. 그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다.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멋진 신앙인으로 나이가 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이가 들어가며 교만과 아집, 자기방어막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환경에 굴하지 않고 도전하고 전진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한다.

사랑하는 주님, 갈렙의 고백을 통해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고집이 강해지고 편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김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의 어떠한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환경적인 어려움을 바라보며 낙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구하고 전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있게 하소서. 신앙의 연수가 자랑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내 자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와 우리 가정의 보이는 상황과 형편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나 매일 말씀 가운데 회개와 감사로 살아갈 힘을 얻는 나,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성경 필사를 한 남편과 아이들, 가정예배 시간에 기쁘게 춤추고 찬양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족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심을 본다. 앞으로도 여전히 고난은 올 것이고 좌절되고 낙심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에벤에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간다.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12〉

이스라엘은 우상들을 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후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한다. 그런데 그 은혜로운 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게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다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그들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이다. 그때 그들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부탁한다. 전쟁을 위한 준비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을 때, 오직 도우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도우셨다! 그 후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다시는 공격해오지 않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하고 기도해도 삶에 시련이 올 때가 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온다. 그때는 좌절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다.”

지난 1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회개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늘 평안하지만은 않았다. 계속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심이 더 큰 은혜였음을 고백한다.

2020년 3월 13일 금요일, 미국 전역에 급속도로 확산된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았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상황이 호전되면 곧 문을 다시 열 거라고 했고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 코로나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르고 확진자의 수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렇게 사남매와의 집콕생활이 시작되었다.

사실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부터 나는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다. 만 1살, 3살, 5

살, 7살의 어린 사남매를 돌보는 일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안 그래도 힘든데 한창 뛰어노는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도 나가지 못한 채 집에서만 데리고 있어야 하는 상황은 나의 마음을 더욱 어렵게 했다. 하루 종일 먹이고 치우는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하며 지낸 지 2주쯤 지나고 교회도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회 큐티책인 『기쁨의 언덕으로』를 들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다. 사무엘상의 한나 이야기가 나의 마음을 찔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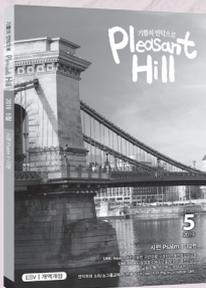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기쁨의 언덕으로'
나의 일기, 묵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의 언덕으로'
한/영 이중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말씀묵상, 저널링,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기쁨의 언덕으로'

한 권에 \$ 3.5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척교회는 물론 캠퍼스, 군대,
교도소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 |
|----------------|---------------------|
| 한 달에 10권을 후원하면 | 매월 \$ 35 per month |
| 20권 | 매월 \$ 70 per month |
| 30권 | 매월 \$ 105 per month |
| 50권 | 매월 \$ 175 per month |
| 100권 | 매월 \$ 350 per month |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books>

말씀묵상길라잡이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 후원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언덕으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묵상집입니다.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영성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시작했고,
이민교회를 위한 이중언어 말씀묵상 길라잡이로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위해 목회자 기획위원, 평신도 편집위원,
영어번역위원 등이 모두 자원하여 봉사하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언덕으로'를 섬기는 집필팀 워크샵,
평신도 편집위원 수련회, 개체교회를 섬기는 QT 컨퍼런스, 기획위원,
편집위원, 번역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후원하길 원합니다.

매월 □\$ 10 □\$ 20 □\$ 30 □\$ 50 □\$ 100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함께 후원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Email :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ministry>



“미 전역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은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합니다!”

지금 교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kumcdevotion@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Alabama (앨라배마 주)

- 몽고메리주님의교회 (유혁재, 334-279-1935)
- 버밍햄한인연합감리교회 (지홍일, 205-957-0595)
- 프렛빌한인교회 (홍성국, 334-221-9392)
- 현스빌감리교회 (256-489-1158)

• Alaska (알래스카 주)

-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 (금재재, 907-346-2886)

• Arizona (애리조나 주)

-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 (이기용, 480-423-7777)
- 투스제일연합감리교회 (고은영, 520-760-9749)

• Arkansas (아칸소 주)

- 소망연합감리교회 (조선옥, 501-308-4127)
-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 (정형권, 479-263-5434)

•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현, 831-333-6857)
-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 (박용삼, 714-534-6378)
-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 (이석부, 310-973-5106)
-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용, 323-641-0691)
-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 (조승홍, 213-747-4209)
- 남가주주님의교회 (김박인, 626-965-9191)
-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 (최요셉, 818-886-1555)
- 드림교회 (정영희, 626-793-0880)
-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 (림학춘, 949-380-7777)
-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 (김도민, 714-226-0300)
-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창민, 310-645-3699)
- 로스웰리즈연합감리교회 (신병용, 323-382-0691)
- 밴나이연합감리교회 (안정성, 818-785-3256)
- 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 (류재덕, 818-366-0089)
- 버클리새교회 (김종식, 510-526-7346)
- 베델연합감리교회 (한인희, 408-244-8710)

- 사랑나무교회 (이상호, 818-346-1617)
- 산타마리아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 (남기성, 805-922-1004)
-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권혁인, 408-295-4161)
- 상향한국인연합감리교회 (송계영, 415-759-1005)
-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 (정상용, 858-279-9191)
- 시온연합감리교회 (오경환, 310-834-5504)
- 어바인드림교회 (원홍연, 949-786-8354)
- 언약교회 (이상호, 909-622-8815)
- 영화연합감리교회 (강현철, 213-413-4154)
- 열린교회 (김규현, 510-652-4155)
- 예수사랑교회 (이강원, 408-746-9553)
- 오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정현섭, 510-451-9076)
-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남재현, 805-488-0100)
- 온타리오 감리교회 (전재홍, 909-986-6641)
- 유바사령의교회 (이진식, 925-279-1214)
- 월셔연합감리교회 (구진모, 323-931-9133)
- 은강연합감리교회 (홍종걸, 714-870-9991)
- 은혜연합감리교회 (한진호, 818-241-9352)
-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 (신상만, 805-302-1706)
- 좋은연합감리교회 (김두식, 916-987-9191)
- 주사랑연합감리교회 (이정환, 626-575-9191)
-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 (김범수, 310-473-1285)
- 카마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영, 805-389-3161)
-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 (김용근, 818-541-0306)
- 태평양연합감리교회 (이도원, 323-255-3734)
- 도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 (강현중, 310-378-9213)
- 콘트리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 (김영래, 925-935-0191)
-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 (김규현, 559-299-0240)
- 희망교회 (김정민/가하나, 858-354-0009)
- 히스패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 (민병렬)

• Colorado (콜로라도 주)

-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 (주활, 303-369-0600)
- 덴버연합감리교회 (이선영, 720-529-5757)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전병욱, 303-753-8823)
푸에블로한인교회(최윤선, 719-544-5739)
한미연합감리교회(이지성, 719-570-0300)

• **Connecticut(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최영, 203-387-1579)
스탬포드한인연합감리교회(신승호, 203-353-0488)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김정환, 860-365-0233)
하트포드한인교회(이재삼, 860-953-0141)

• **Delaware(델라웨어 주)**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송종남, 302-235-5735)

• **Florida(플로리다 주)**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이철구, 954-739-8581)
올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진, 407-801-2731)
달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권, 850-228-1414)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훈, 813-907-5815)
헤르난도한인교회(윤대섭, 352-726-7245)

• **Georgia(조지아 주)**

노크로스한인교회(박희철, 678-978-2099)
뉴난한인감리교회(남성원, 770-683-9381)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김형렬, 706-407-8296)
사버나한인연합감리교회(박진원, 912-355-8225)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송희섭, 770-495-8020)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남궁전, 678-546-5700)
아틀란타한인교회(조영진, 678-381-1004)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이준협, 770-321-0020)
존스크리한인연합감리교회(서정일, 770-497-8215)
트리니티 한인교회(김경곤, 678-431-7924)
해밀턴말한인교회(정찬응, 770-271-4255)
하인스빌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길, 912-368-4875)

• **Hawaii(하와이 주)**

갈보리연합감리교회(남규우, 808-386-9672)
감람연합감리교회(이영성, 808-956-1004)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이준, 808-536-7244)
베다니연합감리교회(최현규, 808-626-7434)
아름다운교회(오대현, 808-343-6839)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현, 808-488-3018)
올리브연합감리교회(김배선, 808-622-1717)

• **Illinois(일리노이 주)**

갈릴리연합감리교회(엄모성, 847-998-4610)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기, 708-799-0001)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박관우, 630-904-9191)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일, 309-768-2663)
비전교회(우민혁, 847-949-9705)
올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이동근, 708-403-2007)
예수사랑감리교회(오치용, 217-419-5132)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김태준, 847-534-2826)
샘물연합감리교회(박미숙, 847-712-0413)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조선형, 847-372-6057)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847-541-9538)
중앙연합감리교회(홍진호, 847-797-1144)
하이드팍한인교회(이우민, 773-643-2144)

• **Indiana(인디애나 주)**

블루밍톤한인교회(안성용, 812-331-2080)
인디애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이기재, 317-894-4456)
퍼듀제자교회(이종민, 217-417-2288)

• **Iowa(아이오와 주)**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이병훈, 515-261-0600)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최근임, 319-337-8397)
에임스사랑의교회(이병훈, 515-233-1063)
콰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조항백, 563-359-4227)

• **Kansas(캔자스 주)**

위치타운해원연합감리교회(임일호, 316-239-6883)
정선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문주현, 785-762-4344)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김다위, 913-648-4277)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정룡재, 620-231-2540)

• **Kentucky(켄터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상순, 270-439-3297)

• **Louisiana(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이동섭, 504-455-7883)
리스빌연합감리교회(나길석, 337-537-5977)

• **Maine(메인 주)**

무지개연합감리교회(조태섭, 207-774-1617)

• **Maryland(메릴랜드 주)**

늘사랑연합감리교회(박종희, 443-763-4566)
베다니한인교회(박대성, 410-979-0691)
성령의불꽃교회(유재우, 703-276-8018)
솔즈베리한인연합감리교회(정남성, 410-860-0090)
에덴연합감리교회(신요섭, 667-206-4162)
워싱턴감리교회(이승우, 301-309-6856)

하늘비전교회(장재웅, 410-200-3859)

• **Massachusetts(매사추세츠 주)**

보스톤연합감리교회(안신형, 781-393-0004)
북부보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최진웅, 978-470-0621)
비전교회(이충호, 617-864-1123)
성요한인연합감리교회(조상연, 781-861-7799)
안다옥한인연합감리교회(강명석, 978-534-3394)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태, 508-799-4488)

• **Michigan(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김대기, 248-545-5554)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응용, 248-879-2240)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TroyHope(Anna Moon, 248-879-2240)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준, 734-662-0660)

• **Minnesota(미네소타 주)**

멘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유승찬, 507-382-6070)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윤국진, 952-938-2142)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백성범, 651-633-2434)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박형두, 612-859-5882)

• **Missouri(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명균, 314-426-5683)

• **Nevada(네바다 주)**

겨자씨한일교회(최영완, 702-595-3678)
라스베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라은진, 702-434-9915)

• **New Hampshire(뉴햄프셔 주)**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한상신, 603-430-2929)

• **New Jersey(뉴저지 주)**

가득교회(이강, 908-464-1807)
갈보리연합감리교회(왕태근, 732-613-4930)
그레이스벤넬교회(장학범, 201-242-8866)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태열, 609-965-1222)
뉴저지연합교회(고한승, 201-816-1284-5)
뉴저지영광연합감리교회(임희영, 201-939-9726)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애, 973-994-0450)
리자우드연합감리교회-한여회중(안성훈 914-548-1685)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정호석, 732-542-4321)
모리스타운교회(최상훈, 973-252-5252)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백승근, 973-694-3880)
아콜리연합감리교회(안명호, 201-843-7970)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조민호, 973-256-6831)
제자교회(이영기, 201-394-8446)

주님의은혜교회(최준호, 973-563-5365)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856-424-9686)
코너스톤교회(정희섭, 201-767-1172)
디렉한인연합감리교회(이재덕)

• **New Mexico(뉴멕시코 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김기천, 505-341-0205)

• **New York(뉴욕 주)**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정창훈, 347-233-1117)
뉴드림교회(김남석, 516-504-5612)
뉴욕감리교회(강원근, 516-681-0164)
뉴욕그레이트교회(양민석, 917-326-1723)
뉴욕삼산교회(이요섭, 718-680-0328)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이종범, 718-701-4953)
뉴욕반석교회(김동규, 516-997-8620)
뉴욕베델교회(진세관)
뉴욕성서교회(김종일, 631-243-5683)
뉴욕주나목교회(문정웅, 718-229-4024)
뉴욕한인교회(이용보, 212-662-1422)
로체스터제일교회(이진국, 585-662-5560)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동기, 585-872-018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김재현)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유명철)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김진우, 212-758-1040)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태)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국재현, 716-748-5886)
부르크린한인연합감리교회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718-984-3333)
시라큐스스망연합감리교회(양현주)
아스토리아한인교회(진성인, 718-626-1278)
우리감리교회(김동현, 347-935-9348)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유화성, 518-387-9078)
웨체스터중앙교회(김철식, 914-948-8835)
퀸즈중앙감리교회(이요섭, 718-359-8388)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718-939-8599)

• **North Carolina(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서준석, 336-852-8535)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엄성일, 919-469-1514)

• **Ohio(오하이오 주)**

맨스필드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9)
데이튼한인연합교회(유준식, 937-294-2018)
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이미란, 614-451-2085)
새생명연합감리교회(전기상, 248-659-7882)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근상, 614-764-8960)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석, 330-743-7020)
캐튼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8)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장이준, 614-882-5819)
한마당연합감리교회(440-845-1728)
한인매디슨빌연합감리교회(우용철, 513-271-1434)

• **Oklahoma(오클라호마 주)**

새빛연합감리교회(정기영, 580-536-6884)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엄준노, 405-672-5062)
털사한인연합감리교회(손태원, 918-622-0045)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김관영, 580-237-6611)

• **Oregon(오리건 주)**

오래곤우리연합감리교회(박은수, 503-641-7887)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오광석, 503-684-7070)

• **Pennsylvania(펜실베이니아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신, 215-280-5768)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김중혁, 610-867-4437)
벤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차명훈, 215-639-3120)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717-731-9190)
인디애나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덕, 724-465-2015)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홍정균, 215-542-5686)
필라등대학교회(조병우, 215-884-5251)

• **Rhode Island(로드아일랜드 주)**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선우혁, 401-739-8439)

• **South Carolina(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연합감리교회(신규석, 864-567-3633)
찰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배연택, 843-797-8199)
클럼비아한인연합감리교회(나웅철, 803-447-6186)

• **Tennessee(테네시 주)**

내슈빌한인교회(강희준, 615-373-0880)

• **Texas(텍사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진, 214-901-1116)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조낙훈, 469-235-8041)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박광배, 972-231-0057)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이성철, 972-258-0991)
동산연합감리교회(유화청, 713-722-9553)
동화연합감리교회(박경원)
러벅연합감리교회(김다니엘, 316-218-8498)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박창수, 409-554-0550)
성누기연합감리교회(소정일, 254-526-3993)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배혁, 210-341-8706)

우리만나연합감리교회(오오한, 817-657-4559)
윌리엄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이병설, 903-794-2882)
웨슬리연합감리교회(주요한, 972-276-2098)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이진희, 254-757-2621)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권성철, 214-238-2003)
킬린우리연합감리교회(전대우, 254-245-8029)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정용석, 713-462-0708)
St. Peter's UMC-Katy 한어회중(김태이빛 281-541-6286)

• **Vermont(버몬트 주)**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배상철, 802-876-7622)

• **Virginia(버지니아 주)**

가나연합감리교회(박주섭, 703-339-8899)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권홍, 757-484-5988)
새빛교회(김은관, 703-385-3390)
성가연합감리교회(최윤석, 757-877-2270)
알링턴한인교회(류영성, 703-489-4596)
애쉬번한인교회(강현식, 703-336-3679)
엠마오연합감리교회(김철기, 804-272-5831)
와싱턴사목교회(김영봉, 703-939-0559)
와싱턴제일교회(정성호, 571-643-0800/0900)
와싱턴한인교회(김영호, 703-448-1131)

• **Washington(워싱턴 주)**

시애틀연합감리교회(박세용, 206-406-6499)
좋은씨앗교회(정요셉, 253-363-3169)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박용규, 253-589-0882)

• **Washington D.C(워싱턴 D.C)**

알파커뮤니티한인교회(202-680-2394)

• **West Virginia(웨스트버지니아 주)**

헨팅톤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최연, 304-522-0357)

• **Wisconsin(위스콘신 주)**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황선중, 973-525-9584)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정희권, 920-687-9191)
참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김성근, 414-425-2530)
케노샤한인연합감리교회(곽한두, 262-658-1131)

• **GAUM(괘)**

괘한인선교교회(김택수)

• **Russia(러시아)**

모스크바연합감리교회(조수진, 011-8-963-617-8439)

성경진도표

| 2022/01 | | | 2022/02 | | | 2022/03 | | |
|---------|-------|---------|---------|-------|---------|---------|----------|---------|
| Day | Bible | Chapter | Day | Bible | Chapter | Day | Bible | Chapter |
| 01 | 창세기 | 1 | 01 | 창세기 | 27 | 01 | 출애굽기 | 1-2 |
| 02 | | 주일 | 02 | | 28 | 02 | Ash Wed. | 3 |
| 03 | | 2 | 03 | | 29 | 03 | | 4 |
| 04 | | 3 | 04 | | 30 | 04 | | 5 |
| 05 | | 4 | 05 | | 31 | 05 | | 6 |
| 06 | | 5 | 06 | | 주일 | 06 | | 주일 |
| 07 | | 6 | 07 | | 32 | 07 | | 7-8 |
| 08 | | 7 | 08 | | 33 | 08 | | 9-10 |
| 09 | | 주일 | 09 | | 34 | 09 | | 11-12 |
| 10 | | 8 | 10 | | 35 | 10 | | 13 |
| 11 | | 9 | 11 | | 36 | 11 | | 14 |
| 12 | | 10 | 12 | | 37 | 12 | | 15 |
| 13 | | 11 | 13 | | 주일 | 13 | | 주일 |
| 14 | | 12 | 14 | | 38 | 14 | | 16 |
| 15 | | 13 | 15 | | 39 | 15 | | 17-18 |
| 16 | | 주일 | 16 | | 40 | 16 | | 19-20 |
| 17 | | 14 | 17 | | 41 | 17 | | 21-22 |
| 18 | | 15 | 18 | | 42 | 18 | | 23-24 |
| 19 | | 16 | 19 | | 43 | 19 | | 25 |
| 20 | | 17 | 20 | | 주일 | 20 | | 주일 |
| 21 | | 18 | 21 | | 44 | 21 | | 26 |
| 22 | | 19 | 22 | | 45 | 22 | | 27 |
| 23 | | 주일 | 23 | | 46 | 23 | | 28 |
| 24 | | 20 | 24 | | 47 | 24 | | 29 |
| 25 | | 21 | 25 | | 48 | 25 | | 30-31 |
| 26 | | 22 | 26 | | 49 | 26 | | 32 |
| 27 | | 23 | 27 | | 주일 | 27 | | 주일 |
| 28 | | 24 | 28 | | 50 | 28 | | 33-34 |
| 29 | | 25 | | | | 29 | | 35-36 |
| 30 | | 주일 | | | | 30 | | 37-38 |
| 31 | | 26 | | | | 31 | | 39-40 |

| 2022/04 | | | 2022/05 | | | 2022/06 | | |
|---------|-------|----------|---------|-------|---------|---------|-------|---------|
| Day | Bible | Chapter | Day | Bible | Chapter | Day | Bible | Chapter |
| 01 | 마가복음 | 1 | 01 | 시편-II | 주일 | 01 | 레위기 | 1 |
| 02 | | 2-3 | 02 | | 1-2 | 02 | | 2 |
| 03 | | 주일 | 03 | | 3-5 | 03 | | 3 |
| 04 | | 4-5 | 04 | | 6-7 | 04 | | 4 |
| 05 | | 6 | 05 | | 8-9 | 05 | | 주일 |
| 06 | | 7 | 06 | | 10-12 | 06 | | 5 |
| 07 | | 8 | 07 | | 13-16 | 07 | | 6 |
| 08 | | 9 | 08 | | 주일 | 08 | | 7 |
| 09 | | 10 | 09 | | 17-18 | 09 | | 8 |
| 10 | 고난주일 | 주일 | 10 | | 19-21 | 10 | | 9 |
| 11 | | 11 | 11 | | 22-24 | 11 | | 10 |
| 12 | | 12 | 12 | | 25-27 | 12 | | 주일 |
| 13 | | 13 | 13 | | 28-30 | 13 | | 11 |
| 14 | | 14 | 14 | | 31-33 | 14 | | 12-13 |
| 15 | | 15:1-41 | 15 | | 주일 | 15 | | 14 |
| 16 | | 15:42-27 | 16 | | 34-35 | 16 | | 15 |
| 17 | 부활주일 | 주일 | 17 | | 36-37 | 17 | | 16-17 |
| 18 | | 16 | 18 | | 38-39 | 18 | | 18 |
| 19 | 고린도전서 | 1 | 19 | | 40-41 | 19 | | 주일 |
| 20 | | 2-3 | 20 | | 42-44 | 20 | | 19 |
| 21 | | 4 | 21 | | 45-48 | 21 | | 20 |
| 22 | | 5-6 | 22 | | 주일 | 22 | | 21 |
| 23 | | 7 | 23 | | 49-50 | 23 | | 22 |
| 24 | | 주일 | 24 | | 51-53 | 24 | | 23 |
| 25 | | 8-9 | 25 | | 54-56 | 25 | | 24 |
| 26 | | 10-11 | 26 | | 57-60 | 26 | | 주일 |
| 27 | | 12 | 27 | | 61-64 | 27 | | 25 |
| 28 | | 13-14 | 28 | | 65-67 | 28 | | 26 |
| 29 | | 15 | 29 | | 주일 | 29 | | 27 |
| 30 | | 16 | 30 | | 68-69 | 30 | | 4 |
| | | | 31 | | 70-72 | | | |

| 2022/07 | | | 2022/08 | | | 2022/09 | | |
|---------|---------|-------------|---------|-------|---------|---------|-------|----------|
| Day | Bible | Chapter | Day | Bible | Chapter | Day | Bible | Chapter |
| 01 | 사편III-V | 73-75 | 01 | 민수기 | 1-2 | 01 | 로마서 | 1 |
| 02 | | 76-77 | 02 | | 3-4 | 02 | | 2 |
| 03 | | 주일 | 03 | | 5-6 | 03 | | 3 |
| 04 | | 78 | 04 | | 7 | 04 | | 주일 |
| 05 | | 79-81 | 05 | | 8-9 | 05 | | 4 |
| 06 | | 82-83 | 06 | | 10 | 06 | | 5 |
| 07 | | 84-87 | 07 | | 주일 | 07 | | 6 |
| 08 | | 88-89 | 08 | | 11-12 | 08 | 고린도후서 | 7 |
| 09 | | 90-91 | 09 | | 13-14 | 09 | | 8 |
| 10 | | 주일 | 10 | | 15 | 10 | | 9 |
| 11 | | 92-97 | 11 | | 16 | 11 | | 주일 |
| 12 | | 98-102 | 12 | | 17-18 | 12 | | 10 |
| 13 | | 103-104 | 13 | | 19 | 13 | | 11 |
| 14 | | 105 | 14 | | 주일 | 14 | | 12 |
| 15 | | 106 | 15 | | 20 | 15 | | 13 |
| 16 | | 107-108 | 16 | | 21 | 16 | | 14 |
| 17 | | 주일 | 17 | | 22 | 17 | | 15 |
| 18 | | 109-112 | 18 | | 23-24 | 18 | | 주일 |
| 19 | | 113-118 | 19 | | 25 | 19 | | 16 |
| 20 | | 119:1-56 | 20 | | 26 | 20 | 고린도후서 | 1-2 |
| 21 | | 119:57-112 | 21 | | 주일 | 21 | | 3 |
| 22 | | 119:113-176 | 22 | | 27 | 22 | | 4:1-5:10 |
| 23 | | 120-125 | 23 | | 28 | 23 | | 5:11-7:1 |
| 24 | | 주일 | 24 | | 29 | 24 | | 7:2-16 |
| 25 | | 126-132 | 25 | | 30 | 25 | | 주일 |
| 26 | | 133-137 | 26 | | 31 | 26 | | 8-9 |
| 27 | | 138-140 | 27 | | 32 | 27 | | 10 |
| 28 | | 141-143 | 28 | | 주일 | 28 | | 11 |
| 29 | | 144-146 | 29 | | 33 | 29 | | 12 |
| 30 | | 147-150 | 30 | | 34-35 | 30 | | 13 |
| 31 | | 주일 | 31 | | 36 | | | |

| 2022/10 | | | 2022/11 | | | 2022/12 | | |
|---------|-------|---------|---------|-------|---------|---------|-------|---------|
| Day | Bible | Chapter | Day | Bible | Chapter | Day | Bible | Chapter |
| 01 | 신명기 | 1 | 01 | 여호수아 | 1 | 01 | 마태복음 | 3-4 |
| 02 | | 주일 | 02 | | 2 | 02 | | 5 |
| 03 | | 2 | 03 | | 3 | 03 | | 6 |
| 04 | | 3 | 04 | | 4 | 04 | | 주일 |
| 05 | | 4 | 05 | | 5 | 05 | | 7 |
| 06 | | 5-6 | 06 | | 주일 | 06 | | 8 |
| 07 | | 7-8 | 07 | | 6 | 07 | | 9 |
| 08 | | 9 | 08 | | 7 | 08 | | 10 |
| 09 | | 주일 | 09 | | 8 | 09 | | 11 |
| 10 | | 10-11 | 10 | | 9 | 10 | | 12 |
| 11 | | 12 | 11 | | 10 | 11 | | 주일 |
| 12 | | 13-14 | 12 | | 11 | 12 | | 13 |
| 13 | | 15 | 13 | | 주일 | 13 | | 14 |
| 14 | | 16-17 | 14 | | 12 | 14 | | 15 |
| 15 | | 18 | 15 | | 13 | 15 | | 16 |
| 16 | | 주일 | 16 | | 14 | 16 | | 17 |
| 17 | | 19-20 | 17 | | 15 | 17 | | 18 |
| 18 | | 21 | 18 | | 16-17 | 18 | | 주일 |
| 19 | | 22 | 19 | | 18 | 19 | | 19 |
| 20 | | 23 | 20 | | 주일 | 20 | | 20 |
| 21 | | 24-25 | 21 | | 19 | 21 | | 21 |
| 22 | | 26 | 22 | | 20 | 22 | | 22 |
| 23 | | 주일 | 23 | | 21 | 23 | | 1 |
| 24 | | 27 | 24 | | 22 | 24 | | 2 |
| 25 | | 28 | 25 | | 23 | 25 | 성탄절 | 주일 |
| 26 | | 29 | 26 | | 24 | 26 | | 23 |
| 27 | | 30 | 27 | | 주일 | 27 | | 24 |
| 28 | | 31 | 28 | 요엘 | 1 | 28 | | 25 |
| 29 | | 32 | 29 | | 2 | 29 | | 26 |
| 30 | | 주일 | 30 | | 3 | 30 | | 27 |
| 31 | | 33-34 | | | | 31 | | 28 |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Nehemiah Project P.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 이메일 kumcdevotion@gmail.com
- ❖ 발행인 류재덕(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 ❖ 운영위원장 이성현(한인총회 느헤미야 운동)
- ❖ 편집인 류계환(한인총회 선교총무)
- ❖ 편집기획 김종완(느헤미야 운동)
- ❖ 영어번역 양훈, 박길재, 김종완, Ester Kim
- ❖ 목회자 기획위원 김진우, 박호현, 방승호, 배연택, 배혁, 조기현, 조선형, 이보영, 유혁재, 차세진
- ❖ 평신도 편집위원 유경진, 정창호, 조숙희, 하금숙, 조윤희
- ❖ 편집문의 kumcdevotion@gmail.com
- ❖ 배송/결제문의 salesusa@hosanna.net / 562-944-5344(호산나미디어)

함께 하신 분들

- ❖ 언덕 위의 소리(Voices from The Hill) / 소그룹 모임 교재
유혁재 목사(몽고메리 주님의 교회, AL)
- ❖ 주일 칼럼
한진호 목사(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 CA)
김용근 목사(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 CA)
조숙희 권사(아틀란타한인교회, GA)
송희섭 목사(아틀란타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 GA)

-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1976,1992 American Bible Society.Used by permission.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 Copyright by HOSANNA & OneBody
- 구독변경 및 신청문의 salesusa@hosanna.net